

韓人 이자得한야爲호는者一果然幾人이

同 海州道

鳳山 黃州 中和

交涉이 되었는지 再昨日 皇城新聞에 헌

命한영미라

平壤市價平壤地方의 물가를 들었을 때, 그는

且於境内家戶에曆書一件식을

之食이非爲養生이라况乎生冷之物乎아

山是觀之면淡泊이是養生之最也니라

小豆가一斗에 豆五兩이오大豆가三兩五

錢이오大麥이一兩六錢인本月十五日

에는一兩이더니二十日市場에 一兩三

錢이 되고 今日은一兩六錢이거肺胃호약

디라又米價 五兩이로糯米가 六兩五錢이

나市場에 全無支다호다라

이 蔡書官吳勳去二十八日에 漢城郵遞

司長尹奎燮氏는農商工部収書官을 任하

고外部収書官俞鎮賛氏는法部司理局長

을任하였다.

이 蔡書官吳勳去二十八日에 漢城郵遞

司長尹奎燮氏는農商工部収書官을 任하

고外部収書官俞鎮賛氏는法部司理局長

命한영미라

消火器

尖火豫防

必要機械

日本政府專賣特許

嚴寒時女婦女幼兒

使用之勿論

此器械에도結冰意念

逸之害十有甚於勞勤之害也니라故廣廈

之下에以陰涼得病者非比夏畔之耕耘

者外道路之擔負者之病也니라

勞逸이不節면亦足爲病이라

該事件은尙未決案이요昨職에前觀察의

直爲貶下이尙仍爲復任니라

抑之民三百餘名이號訴於觀察府호야以

博厚郡守豆定查官호야來義州호야查之

未半에 犯已至三十餘萬이러니會自內部

로電節安貼호야已爲多錢子王라其繫於

內部는不必言論이요三次見脫於已權之

網호야渠之多福은可矣이니와數萬義州

之民은 犯罪호야

▲ 防微之道

▲ 好生惡死人之常情也豆定查究其所

爲人所産物種豆定查商本有地稅

而豆定查創出海稅名色호야勒徵濫攫이

無所不至호야施海稅於山郡物產이可乎

豆定查與其郡書記及該府主事豆定查

人入賭博호야蕩敗家產者豆定查不知其數이

호야深相締約호야無論何許民狀이豆定查

不卽題下호야留置廳豆定查及其有賂然

豆定查與其郡書記及該府主事豆定查

人入賭博호야蕩敗家產者豆定查不知其數이

호야深相締約호야無論何許民狀이豆定查

郵遞司區域線路

(五)

今

安祿

伊川

投

時

安祿

文川

高原

永興

定平

義陽

襄陽

臨時

林

陽德

與平壤

動物

交換

時

林

英

國

二

集

美

聯

國

五

集

美

聯

國

六

集

英

國

七

集

英

國

八

集

英

國

九

集

英

國

十

集

英

國

十一

集

英

國

十二

集

英

國

十三

集

英

國

十四

集

英

國

十五

集

英

國

十六

集

英

國

十七

集

英

國

十八

集

英

國

十九

集

英

國

二十

集

英

國

二十一

集

英

國

二十二

集

英

國

二十三

集

英

國

二十四

集

英

國

二十五

集

英

國

二十六

集

英

國

二十七

集

英

國

二十八

集

英

國

二十九

集

英

國

三十

集

黑川

電報을 捷^捷히 日本에 發^發하니 徒^徒로 三日
號^號가 同^同일에 釜^釜山^山을 過^過하였다. 與^與此^此
라

總督將來，並令道本府批定。男爵尾崎王良氏，在本月十五日，音出來韓國。特此佈。

治外權及二命者底說(二)
看外如支那軍艦은其一時滯泊韓國의法
律에服하지 아니함으로以支那商艦이라
두엇더 환境遇에 之全이 환恩惠를 蒙하는
것지可靠다 고論文者니 었느냐然하나
萬國公法에는 그것을 全然이 許容치 않으니
하니라 英國의 議論을 據支那의 全國港灣
에잇는 商船은 其地方官의 管下의 일자其
法院에 서면 告全說을 持하고 法國에서는

罪囚減放。율법기로소。御임자Issa
경소로 사민을 나리사 경향자 처벌의 뉙
법회에 갑등을 받은 법도 갑등호마신 죄문
반포되았는데 이 죄문처을로 축참정 남북
도와인천·삼화·봉동·온주·창원·성진
평양 등 저편소예는 갑등을 드리고 암교·암
동 잇는 곳순。

평리원예십인이요 한성부예십사인이
요 경기과도처관소예십삼인이요 경성남
도예사인·경성북도예오인·경상남도예
사인·경상북도예팔인·제주도예이인·

감시자이자 괴에 죄자를 차출해야 광역을
흘진다. 또 혼성이라도 도일을 만회하
니 와 만일 풍성과 갖치만 일주전을 남만이
호는 날은 파열협잡의 형적이다. 즉 시현을 흘
뿐더러 꿈면에 오호는 원망에 죄자를 차
두 이사지 주호 끗스로 돌리 보낼 전단
이는 출성에 일흔을 벤어 가지고 물 흥에 흥
위를 범종이 아닐까 한다.

原線路每日發送
成興元山間一走平水興高照支用
全北音問洪原
臨時縣縣問日食送

領土上主權과 治外權을 아에서로 退譲한
야서 外國商船에서 道盜을 犯한 罪를
야도 全國敎府와 與知할 보니 아니요 陸上 물안장에 일한
에서는 該船乗員以外로 所犯이 있드면當
그 밖의 대상 습격으로 단정되니 곳, 순
장원도에 이인 평안도에 삼아는 평안북
도에 사임 부선한 이인 평안향에 일한
경비원에게 한마음. 그 경부에 삼원·

연합국이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대응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은 단지 국가 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과 민족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법은 개인의 기본권과 민족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原線路每日發送

가 면 땅 까여도 땅에 눈이 푸르고 놀랄 거 같아
썩 마엄스나이는 군고에다 사엄는 터령이

城津郵遞局所管區域

리죽성하고 와국을 이만 하드니 윤고로 곡
가가 오 하려 펑동 훌 모양이 邊 땅이 안온
히자닌 모양이 더니 이제 몸을 죽나 장위방
이 못했는 데 알남이 는 미 쟁 밭술 달듯 기암

金城 河間 **明川** 昌州

人을 함부로引渡하거니와는 뭔가 하知。○行宮建築疏廳
落자。○此에 反支 악國事犯은一般이引渡。○行宮建築疏廳
호지아니호기로발써例가된것스니。○是호지아니호기로발써例가된것
仁愛主義로委자生호지친다北采舍義園。○는 끝에 與궁근축호하고연통이 되고 當차

하고 다른 날도 밤을 더 밟지 못하고 힘으로
미끼 사정풀이 죽는 끝을 깨닫고 나경총은
다시 풀적 배를 찾고 그 배를 찾았던 후
면 청상 미끼가 한동 홍분 슈나라디락

의서率先此臺唱高마일의 軍艦의 海外 상수를 떠나오는 바를 當은 작품이 미후발
權에 就하야 黑議을 挑호하여 임시 일도 놔두는 부자임이 미우재를 留하여 허마다
命者를 底譴을 기不得本은 自然을 誓호나 다니며 或者說 會齊朝國을 留할 소임은 장차
한국을 選擇하는 바를 言하니 이는 朝鮮을 選擇하는 바를 言하는 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11) 閔此爲盛。○ 문경에 유연(遊宴) 했을 때
예대(以代) 아(人)를 마시기(以飲) 妓樂(妓樂)이었
장(掌)을 맡았던(掌) 대금(大金)을 담(盞)해 았다. 그는 더욱
전(전)에 걸친(挂) 몸을 아(아)었고, 손(手)과 입(口)을 깨끗(潔)

濟州郵遞司所管區域
度測
度城

船舶의 刑事犯의 隱匿所를 삼지 못하게
라 하고 二國事主의 命者의 배는 船舶
의 行務에 支障이 生호지 아니할지 畏에 有
庇護의 기울與得호미라하고 规定하니라
자취를 끊어명률이 관자체히 암수는 험끼니
화 황후의 기동호성등 끝슬그대로 두기
가황속호족특별이 조금아치법총호야마
념호기호미유불이라 그부비는 광교돈을

로 가잇스먼미이이기성을설마음식을썩
여서유열화당호니일은바로폐지상안기
정원의꽃처요꽃처는탕같아며민선운군
마호재한심무원법률와한국목적폐탁

號九百三十一

報 新 城 漢

日本郵船式株會
本人이 隆曆六月二十일에 南署廣通坊 茶
洞契八統八弓呈于漢城府玄外立旨를 成出玄外立旨를
正玆에 廣告玄外勿論 因外國人玄外 시고
捨得玄外 休紙施行 告白

芝罘旅順太泊行	芝罘旅順太泊行
芝罘	芝罘
旅順	旅順
太泊	太泊
八月廿五日	八月廿六日
午後八時出帆	午後八時出帆

日本郵船株式會社
濱船仁川出帆廣告
釜山長崎直通
大連丸
八月廿四日
至后五時出帆

九丸川濃信筑
八月十八日正午出港
八月廿六日正午入港
八月廿五日正午出港

第三回
木曾川丸 八月十四日正午出帆
隅田川丸 八月十五日正午出帆
鶴田川丸 八月十六日正午出帆
嚴原海岸港

本浦群山馬山釜山馬歸神石人阪行
白川丸 八月七日入港
八月四日午後四時出帆
木浦釜山嚴原長崎馬關神戶大阪行
信濃川丸 八月九日入港
八月十日午前出帆
八月廿三日入港

大阪商會株式會社
電信二日出札廣告

廣告

宮內府御用

惠比壽麥酒

世 上에 酒類는 여러 빙 기자 가지 있으스
혀 効驗이 마는 거시업 소리 죠 증에
세계各國人이 믿으 稱讚호 거시오

卷之三

龜屋商廳

此藥은 빈티 **을** 驅逐 **하고** 有 **爲** 헉야 **大端** 하 **効驗이** 有 **호니** 昨 **午**에 **도** 發買 **호았거니** 와 **수년도** 依例 **하** 然貰 **호터이** 오 **니** 僉君子는 **來臨購用** **호시옵**

日本政府專賣特許 東京秀工社製 東京秀工社製 專賣特約專賣 失火豫防 輕便消火器

小生。沙城。馬當。號。號。二十年之外。
至。公私間事。毫不拘。立特。希。僉。君子。
의厚誼。忝荷。호연스니。感謝。無既。오本日
是。此地。發去。是。一。次。希。晉。拜。호연。이
는。나。行李。匆忙。中。에。間隙。을。得。치。吳。호연。니。禮
念。高。廉。以。計。高。廉。秋。之。次。行。道。氏。
二。三。

失火豫防
日本政府專責特許 東京秀工社製
輕便消火器
右輕便消火器已今年來特別在宮
府에서購用多甚名譽臺得至精巧
此器械旣已結冰
此器械最大緊要毫無差錯
右販賣支倉爲支倉百個量限支倉
日本貨十二圓以內至販賣支倉
支倉

小生。沙城。馬當。癸。癸二十年之夕。至。亥。公私間事。毫不拘。立特。特。尅。僕。君子。一。의。厚。誼。臺。忝。荷。芝。焚。斯。니。感謝。無。既。오。本。日。念。兒。예。此。地。晉。發。去。支。近。니。久。朝。晉。拜。高。帝。이。亞。底。나。行。李。匆。忙。中。에。間。隙。害。得。체。吳。亨。오。니。禮。原。諒。支。心。을。翹。望。喜。內。替。用。支。야。茲。聊。表。慇。忱。苟。오。니。僕。君。子。二。機。械。

新到器物 日用廣器
軍用兩片鶴嘴 及銀
手用器

各色

A black and white illustration of a man from the chest up. He is wearing a tall, striped top hat and a dark, patterned jacket over a light-colored shirt. He is holding a newspaper with both hands, looking down at it. The newspaper has large, bold, vertical columns of text, though the specific words are not legible.

右廣告
明治三十五年五月二十一日
贊化病院主 古城 梅溪

鍾路菊影堂廣告

神妙無比之良藥消靜丸

一週日料
一元五錢

大安門前
安昌號告

紀念大

州大慶禮式舉行于在虹有司

曰先遊會日人使來列席見是恐高見

自古未有有此例也而自古未有司

委員天下事物을 議하니 任倫을 입의 정

聖代의 爲事는 任此類事이니 有客가 我故도

도 言有司와 任其事周到한 章次 感歎야

雖外이나 任此事이니 任此事이니 任此事이니

任此事이니 任此事이니 任此事이니 任此事이니

로 次議事의 是이 되며 今이 流出은 次議事의 是이 되며 今이 流出은

印不에 許文고 隊員等의 所乘椅子이 現되 新敷前에 級紀放置함이 내威

은 次議事의 是이 되며 今이 流出은 次議事의 是이 되며 今이 流出은

印不에 許文고 隊員等의 所乘椅子이 現되 新敷前에 級紀放置함이 내威

◎ 仁港檢疫 日本及遼東諸港
引自

제 0 르
개 0 증 0 지 0 밀 0 니 0 윤 0 시 0 향 0 이 0 드 0 리 0
데 0 이 0 시 0 흐 0 는 0 일 0 죵 0 는 0 음 0 네 0 으 0 로 0 사 0 흘 0 어 0 드 0 리 0

조선 평부 구경 고운 경기 부는 들판에
이라처음으로 외국인의 행장호집과 미리

두만강이니 청진과 아사와 조선삼각에

卷之三

에 人來 亨 般舶에 對 亨 亞 政府에 人는去
五 日 부 터 檢疫 운施 行 亨 本 た 道 里에 鎮 南
浦 에 서 怪 疾 患者 가 發 生 亨 也로 該 浦 에 서

날에자증호야당연히사연함도라와서다
론꽃쟁이서는전례와웃처음이라이제기시
호던제후에도영을보내온나의번정지시

흔물^{흔물}을구^구경^경호^호로^로참^참奏^奏타^타청^청천^천호^호여^여부^부비^비
워^워서^서참^참아^아찌^찌나^나지^지봉^봉하^하다^다가^가정^정인^인철^철도^도에^에차^차
물^물마^마소^소리^리의^의약^약연^연사^사들^들되^되서^서호^호울^울일^일울^울듯^듯수^수

스이라고 셔서 절에 드황폐 궁벽 처이 달을
엿스나 금일에 당호여서 눈린 하에 흥

來泊호는 船舶이 도입되는 날에 그 배를
기로 헤야 한다더라
● 城門修繕 京城各門은幾年頽壞에委
置호랑고別另修繕을 加호기 아니 헤야
나茲에開호를 稱慶禮式期日을 先호야 雖
務應에서 實脊修繕한다더라

기름이 초승달이 되는 날은 보시정 흥亡이
시호 면유삼일전 못하에 비를 흐는 모양이
라국히 추하고 드려운도 선인사는 끗과 거
인 철도 광애 일인좌 등지적 암호로 길을 다
고 이천을 쳐서 준비물 향더니 꿈무당 일재
일회장남을 당하고 봉준하고 유가천립 향다

마도 시온 복부인의 손을 놓고 정답한 거였나 보고는 부려워서 청첩호는 소리를 듣고 차라리 아니 향야 선선타령부려워서 차가화라 차조화라 엿던사람은 저리개광고정호고만 험여총조로 모여드려서 일봉집을 애워쓰고 또 도락같을을 아져 못 헌다.

만주 — 호황청서 버리으니 라는 미남방으로는 통화현으로 노동이요 서으로는 통화부로 심양이요 서북으로는 창대학으로 남포 탑이요 북동으로는 명고탑파 길립으로 화성위요 동으로 남으로는 화춘파 죠선과

北 方 事 情
西比利亞到遼東以北四鴨錄以西至自來荒廢未聞之地計挽近以來至清韓人民
雜居而舉闢之或以始如財源或爲天下
之寶

하이 헉스를 봄 가우 헉스 씨를 헉스 둘 정부
야 가가 징을 짓고 그 암자 징동 절단녀로 비
탕의 비세를 막고 차일 풀 치셔 구경호 가평
호도록 만들기 본 유홍 더니 장날을 당호면

江淮地形
楚漢戰爭도 한강 백두산
아니코아라사의는 본래 팔계사법
교로원후가 한탕호고더면 이황폐호마관
미로질이 심호기로 미성호는 일면이 했

한국도 오동도, 리길란후술씨 그리고
허삼위 이화로 두 학생이 지으면 이화로
으로는 도동화생을 나려오면 우장금구에
황허사 밭이 묘서 불으로는 대륙이 무한금

之最古處。其地有金銀銅鐵等物，及木材、石材，皆是珍寶。拉荷有遠計者，土司曰：「孰不流涎於此地方哉？」其程道自東海元山而往，自西而自黃海牛莊而往，並不過數日程。印哥者，有疾星者也。當強昏，何須憂哉？」
▲其所產是金銀銅鐵等物，及木材、石材，皆是珍寶。拉荷有遠計者，土司曰：「孰不流涎於此地方哉？」

이는데 여러 천명이라 흥은 소를 떨고 오면
혹은 꽁풀을 저고 오며 그 다음은 선파와 물을
물을 가지고 모여는 터를 석진은 술집과
술집이 있고 중에 짚풀을 써 우기로 가워로
두 다리며 찾녔지 오호 두엇사자 아니 흥은
오호는 소리요 할 흥은 술집 가판이 떠나
얼흔 꿈 날이 열기로 각처 노름꾼이 모여들어
길가에 물리로 모여서 돈모아 흥기롭 달달
내 닷두는 소리와 물건이 면하고 소리가 나

호미니반군이 렉토로 호가변천호를 달아
이 떠려 온다는지 라장자 가차 차조(朝祖)
을로 가진 점점 많아 흥아(興亞) 이 무성하고 그
성이 성설호(聖澤湖)니 각처 일민이 드리기 서 텁(停)
을 지면 호 꽈가을을 구성(構成)하고 아(亞) 성(聖)자(子) 이
주전(主戰) 명(明)이 부작(副將)이며 출히(出希) 가불성(嘉福城)을
약(藥) 숙(宿)하고 성(聖)산(山)이 빤석(寒石)하고 의식(義石)을 두고 있다.
제임스 미학정의 칭찬을 드리자. 이 호는 그 자체로
제 님토니라(其名乃拉) 하지 아니(不) 하리요 그리나

왕으로 철도사 면에 이통호 고하민에 행하고
가지장되면 만류다방을 중벽처 이 땅에
슈임고개를 야토니 소산은 금은 동치파리
모우현파목저석저등이 턴하의 류면한
시라만일자비호야 각국파리부리교류
상호는 그 부성호진몰이 세상에
가불원호야 통히로 치삼위짜지 가기로

미사사령부 주둔을 시도하려는 도모를
비호는 종에 풀리의 화물과 소리가 죽어
나니 전야 윤 님께 준 선자 잡풀서고
여기 가족이 있다 나니 그 면치를 쟁지 했
대고 꿈을 하게 헛던던 야까오 날은 드방전화
별 애좌 앙스나 잊지지 화호는 죄증하여
당일에 그 뿐만 아니라 물질을 소요 그 달을
금석파설파설파설 유와 석양등 물질이 아리고
분기류나에 눈이 틈집에 편히는 어둠 팔
를 위하고 악당사 노약사 려오니 를 기
리더라

정신을 떤 드리길 시도한 듯이
의자 못하고 광장의 침략을 퍼뜨려 한 자는
죽은 바 술량하고 일약 환사들이요 청과
인종은 몇 리 요금 이후에도 밤낮 홀로
의을 자여라 근력로는 깊어 차해 달빛에
날의 헌술노략하고 대체로 황제가 증거되며
의흔한 말이 지친 죽기 대체로 끝에
리로는 아라사가 통으로 향해 애리 품을
드니 그 형세가 자못 잇디 흥는지 일자별
자련하각 축스름의 놀랐고 월며 엿도 풀
집히 청각하고 꽃사라 그 디 힘을의 놀았
되 살으로 는 장위 산과 백두 산과 선취

피슈월드
불파슈일경아라친절노머지아니호아름다운
근디방으라호말호리김호야물살아
호야부친을챙김말호고또그디행여사와보는
에기간호였스니동아의요창지리금당
지못흘흘사라유지호고명자사와보는
와성각호는바미잇타흘년제세상에유신
가입스면미여니와세상에효금이라듯이
자흘스룸은반다시이땅에벌흘이더기다

朱常階重刊續編

惠北齋

A circular library stamp with a decorative border containing the text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The center of the stamp contains the text "EXCELSIOR LIBRARY" and "EXHIBITION LIBRARY".

鍾路菊影堂廣生

本集은 韓書(韓書)과 遺稿에 가깝고有力有勢
特妙而切(切)리
本集은 從來呈留於家 藥局에서 發售하는
本集은

國朝文忠公集

卷之三

漢城泥川

卷之三

卷之三

八月廿五日入港
廿六日在出帆

消火器
失火豫防

小坐。況城外駕程甚遠，二十日之多。
主事時公私閒事，竟不拘持。特許僉司
對照讀書，亦可為應酬無既。不至
謂此地差發去，支遣日久，督督耗費，以
至行李匆忙中，得問隙空，和刻吳音，以
屬聽忽。又一事甚懶，其密教至新聞紙上，
未得一拜。玄都殿教，就後一日，徐君子一

韓化病院醫務擴張延告
一 은當居留地公醫附稻生醫學士科生監
昌川製劑生研看護婦等招聘定
昨來首東支各各院務從事
一 은增築支中附普通病室隔離病室
手術室等另立落成玄菟醫務擴張
者一切順境

卷之三

原道先生集

卷之三

七月廿二日

卷之三

卷之三

本人^印陰曆六月三日由南署廣通坊
洞契八統八戶五家三十二人同來奉旨
呈領引呈于漢城府^支立旨是成出
正茲附廣告委^印勿論內外國人^支身
拾得^支外兵休紙施行喜
趙秉惠生

This block contains a vertical column of handwritten Chinese characters in black ink on a light-colored, slightly aged paper. The script is fluid and traditional. A prominent red square seal is positioned in the lower right corner of the page.

官報抄錄

The image consists of four identical, stylized motifs arranged vertically. Each motif is composed of several dark, irregular shapes that resemble petals or leaves, creating a symmetrical, star-like appearance. The motifs are rendered in a high-contrast, black-and-white graphic style.

不知汝之情勢。外國人經緯亡在於猶弱
而我不在條理。以官不可擅便。豈不
爲受理支耳。宰牧之職皆爲制而設。豈可因
有宿面官不重耳。臣既何以採擇。此等論
等。若免官懲戒。或亥發否。非是朝廷本官
風俗頗與本官一中樞院依官金銀植。同
日。明成化二年。同文等贊。同奏裁取。

官報抄錄
臣第三千三百六十四號
宮廷錄載 詔曰近日雜病自隣國乘
流行於義州等地 云聽聞驚愕此時人民
生保護之方宜其講究恩懷預防全醫務應
特設臨時衛生院會同內外醫士凡係衛生
盡心詳論以備不虞含有傷寒之藥警務局
漢城判尹各道觀察使府尹監理郡守一
用心於人民衛生極力保護毋負朕如傷寒
往之至道 七月二十六日 在掌禮院卿吉
金曉鉉謹奏沈領敦寧趙特進尹謹政明
允杖之禮令掌禮院擇吉舉行祇受日遣
書奉賀艦仍賜二等獎宴置令宮內府從儀
輸送事一勅下矣依前例 詔書令弘文館
撰出几杖亦令營繕可造戒進排面禮稽禮
錄受几杖吉日例自不擇定 詔書聞事
官陪往言諱几杖則承旨傳授矣今亦依
舉行而立日進謝 表一欵儀例舉行事
有何如謹上奏 七月二十六日奉
依奏 奏禮院卿臣金曉鉉謹奏因舊
禮院擇日舉行事 奏下矣令日官金曉鉉
府奏本 禁源殿正殿太子殿落外禁
批頒時舉行事知委何如謹上奏 七月
二十六日奉

禮院擇日舉行事。奏下矣。令曰官金庫庫
庫銀賄賂陰匿六月二十六日與時爲告云此
牴牾時舉行事知委例如諱事。奏十七月初一
年七月科舉奉旨依奏。議政府費政官肆
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費政臣尹定求謹

奏表助監鑄器官道秉敘。著老所與清正
吳在豐公使館參書官朴晉衡。著老所與
務官李哲宇宮內府禁書官尹鑑。首領校
教官劉漢容公使館禁書官趙燦錢道院按
師崔相敦通話司電話課長李圭鑑。醫務廳
醫務局長河相慶正王善李禹六善韓水源
何如謹上奏于七月二十七日奉旨依
奏。○
李學仁升一稱廢時續式事務委員知差下
陞正三品。六品李萬善。六品韓水源
李學仁及辭令。△陞正三品。六品李容
拜。△陞正三品。郡守李年夏。△陞正三品
六品趙重恩。本陞正三品。六品李齊魯。
陞正三品。六品李鍾煥。△陞正三品。六品
金堯勳。△陞正三品。六品任昌宰。△陞
正三品。六品姜瑋秀。△陞正三品。六品
晶金攸聲。△陞正三品。六品任昌宰。△陞
正三品。六品姜瑋秀。△陞正三品。六品
晶金攸聲。△陞正三品。五品具鎬聲。△陞
品。六品朴塽夏。以上二月九日△依願
三品。六品李道相。△陞正三品。六品尹
免本官。惠民院參書官張致淑。同鄉圭。
鉉。同洪近淳。同尹準求。同秋柏韓。△任
憲法院參書官敘任官六等。六品金晚
九、九品禹永命。以上七月二十日△
免本官。德山郡守李相宇。右議政府費
政法部大臣臨職署理元帥府記錄尹潤基
提軍參將李址鎔。斗照會參接吏。皇朝員
外本郡民李殷植。外挑外罰族之訴題。判
明韓商鑄。同池漢能。△任中樞院議官
奉任官六等。從三品朴有鎮。從二品全
光熙。正三品崔觀來。正三品南基善。九
品趙榮龍。九品韓炳琳。九品朴致遠。以
上七月二十五日△依願免奉官。東明
上陵無奉尹景昇。徽陵恭奉鄭在學。中樞
院議官金亨斗。同崔正湜。同張仁英。同
李基完。同朴有鎮。同金光熙。法部平事徐
丙準。仁川監理署主事鄭國鎭。同鎭源監理
署主事金珍琦。吉州監理署主事尤燮。同
任僕知敦寧院事。敘奏任官五等。正三品
金有濟。△任太醫院典醫敘奏任官六等。△
太醫院典醫補敘奏任官六等。金興圭。△任
大醫院典醫補敘奏任官五等。太醫院韓
世均。△任太醫院主事。張顯遠。△任敦寧院主事
敘判任官四等。通話司電話傳諭主事。△
典醫康駒榮。△任宗正院主事。敘判任官七等。
△任國丘壇祠祭典官。△任國丘壇祠祭典官
等。△敘判任官五等。△任敦寧院主事。△
宗正院主事。韓炳熙。△任東明王陵恭奉。△
敘判任官四等。通話司電話傳諭主事。△
光杓。△任國丘壇祠祭典官。△任國丘壇祠祭典官
議官。△任國丘壇祠祭典官。△任國丘壇祠祭典官
官六等。△崔在璣。△任仁川監理署主事。△任
金余榮。△任三品金春植。六品林炳雨。△任
法部主事。敘判任官六等。△任德源監理署
判官。△任官六等。△李鉉承。△任德源監理署
官六等。△尹鉉。△任官六等。△金鉉。△任官六等。
△任官六等。△金鉉。△任官六等。△金鉉。△任官六等。

管舉選任官六等。劉崇判任官八等。趙思良任官六等。東虜吳循善、金英鑑、朴中炫、柳光浩免懲戒。六品李源昇任軍部主事敘判任官六等。任憲淨任法部主事敘判任官六等。趙南晉任憲民選任官六等。李義七任官六等。金達然、崔光秀沈啓祚、李起鉉、李義七、金達然、崔光秀沈起澤任內部主事敘判任官六等。尹鍾三任官億（以十七年七月二十日）免不官。金羅北道觀察府主事柳賢鎮右議員判視察使。趙漢國與報告書參據玄暉該員外事體不顧文。叶曉聯時任副使。尹鍾三以委免未官軍部主事任直隸。依頤免珠官。尹鍾三相主事宋奎老同李種甫同朱擴煥同吳世鏞同全錫均同金文恭。內部主事尹鍾三判任官六等。宋弼憲任延民起任官六等。尹鍾三判任官六等。因台蠟、邵漢卿、李憲奎同北道觀察府主事李遷植任官六等。尹鍾三判任官六等。李圭昌任忠淸南道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朴麻東任忠淸北道觀察府主事。尹鍾三判任官六等。洪鍾昌任官六等。尹鍾三判任官六等。尹鍾三判任官六等。

廣
告

三



鯉路菊影堂度音

卷之二

本葉是從東至西，當葉同向，以北則有
有含苦良藥，外附於根，根生於土中，其葉
本葉是附於根，根生於土中，其葉
者不惡，此無不治之良藥。其根亦可入藥，
取其根，切碎，以水煎服。

卷之三

1. 驗이 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2.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3.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4.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5.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6.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7.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8.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9.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10.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臨時用を参考

中華醫學會化病院務擴張甚速，即于
年間留連公署，藉生營利，其事不一

鐵道部總局在叫着誰呢？答：指點。——啊，
昨加着京漢、各各院務叫從指點。

원래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과 평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 외로는 그의 능력과 재능을 인정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다.

諸侯惠子以繼所喜，而此
是以後皇上以屬院務督領張桂臣等
急督自頭明宮至深宮，不許清日外。

子惠其無私焉請歸之以成其仁也

內門往診料量不徵收費，上船即付。其人半信半疑，

施泰士并叫在特别事務處

明治二十年正月
奉化清流主

卷之三

本督既不事蠭業，委託諸君維持，
豈敢以爲責耶？其姪鈞草創此公

王伏坪新譯所作，幾有幾斗落晉得道之餘
姿，如詩歌、賦文、序文、論文、雜著等，無論內外國人，皆可

公惺安坐而毛老隣庭

欽賜賡縣七月份江南票已到準期未納

凡日月會如貫者欲兼人余者計湖海貯
井得望榜日令已到得影頭多利少害多

核對稿本

卷之三

李度支大臣辭職

이 는 別도 障碍이 無는가 옷이나 滅洲國境에 入한가 漢口가 四十時間을 停止되는 中途에 空留해 앉노라 하여 鐵道는 다만 滅洲로 出하고 俄國軍隊의 急을應하고 죄를 으로 徒歩로 走나니

● 外署理疏遞
外署理金臨時署理會審
煥氏不平日身病乞歸道吳江私
邸亦辭養日去十三日辭疏上奏
并乞該吏部准其回籍

兩郡民怨
金浦斗高閣等郡에는 石皴
經費分排錢이 葉七八千兩式이라 하고 每年
一月支取 二月收三月民怨日甚甚者甚甚者甚
나王圓券은 青色이다

가再次度大督理^을 향^{으로}에^서稱^호하^도
李氏는 韓國의 第一流財政家이라 비록^其
爲人에^서 非之說이^有 했^으나^는 氏가 勤
儉力行^을 行^하며^서 精勤^을 表^미 常人에^서 過^한 豪^을 恐^한
居^되 天下^을 上^{으로} 識^{하고} 有^되니라

을 雖有 言據 但 1 特 無 道 本 林 之
澈車 所要 燃料 在 滿洲 境內 以 有 聲 誓
深林 以 有 伐出 者 由 于 民 人 皆 喜
賓 以 到 于 亞 該 地 的 狀況 을 觀察 本 中 以
地 位 俄 國 經營 上 的 政法 的 中心 이 되 本
地 位 商業 市場 的 中心 이 本 適當 치 못

事가를省疏其惡이라既有實患호니姑不
可強이라所辭中에署理의임을依施라호니
오셨는디協辦崔榮夏氏가署理을임호니

○ 戲唱雇傭
文亨弓 戲唱人三十名을 華國에 雇聘하고
正東關內苑遊會時에는 內外賓을 限三十
名만 許入하였다.

今其輜輶以北之任，猶難於彼。不復以
支其目至該當。且國神也。不美好矣。無
玄丘。况是時。舊高。旣禮式質。加巨額。以
子。蓋之。則事。豈。支。非。也。

및 正該地에 居住す。日本人은 凡二三百
名이 오 氏가 六月 下旬에 該地에 到す。

牛督刷落一萬兩以上未納者每加三百金

爆裂葉을 깨奪한 뒤로 盜漢들 네 사람은 舊家
군에서 洋人의 배를 抓한 뒤에 다니다.

리此難局을 隨意로 諸君이 聰明을 賦하니
면其業의 爲易이 無害요 可히 推知할지라
我儕가 李大臣의 胜負잇자 此局面에 處置
과 흥은 才聞이었으나 李氏의 才腕으로 以
지 야 반드시 而히妙理가 無처아니 豐전입
傳說에 然惑되니 以가 면서 溝納郡守를 厲

◎ 慎謹二詔 詔曰曩年所頒勸等은未
不備而其在因時制宜之方略不可無錄
變易之美疎茲加定瑞星大勳一章
尔取義於國初故實也上付其位次之列

三大夫府中으로補職^支야吳實施^{호사}다^나
如^여平妓入城^{평妓이 도시에 들어온다}稱慶禮式^{행례식}에^에恭待^호平壤^{평양}
生三十名이^이爲^되先目前에^{앞에}入城^{도시에 들어온다}호^호았는^는디라
호^호아^아來京^{경기}模樣^{모습}이라^{이다}디라
守免世^세報恩^{보은}定^정李炳珪^{이병규}氏^씨는^는故^죽

서도今回에 在仁宗 때 前日本巡查를 離任하고 였다더라
支那巡捕頭와 巡捕를 任托하였다더라

實遠不及此。其後雖有調理，至清口一
又云：「氏族既定，則外興園局，而貯藏之益
額，上足以資，下足以應。」我上引
尋其真義，知有吳玄朴，雖守量嚴飭，而
其一法，亦與國庫財政無異。至不足者充盈
而亦其一法，則然也。韓國財政，豈紛然
雜然之間，如鹽茶之至，至少，而上至不
可不國財，出人斗大方針，是確定也。此以
新報城漢

金尺李花之間玄以務令循序漸進아니
我臣工은其各知悉玄라호 오셨고又謂
感發人心에 충勵士氣玄以之奮忠玄
以之愛國은未有過於聲樂國歌之節奏
니宜有制定이라令文任으로選進玄
오셨다. 흐더라

支正牧民의官을不置할만不如하더라
⑤ 昨日官報에云支那asz列爾氏가病으
以支야 允許를被支야辭退支那즈니
는好個外交官更是더욱大勢를逼迫하거
天可將次餘年을遂別支야病魔是錢支
者一幾千名이라交通形勢가一變支
者一幾千名이라交通形勢가一變支

李氏方果然真太力。金石有聲，人不見其聲，是可爲而也。

太子姫殿正母慈王室
支亞實施호다디라
馬山電報 八月十二日午後發電
支號스되去九日에釜山에서入港宣

日暮歸館 萩原書記官은 再昨朝에
川에 到着하였으나 午後四次列車에 乘坐하
歸館 立ちあがめたり

○余十曉喜冒立蓮花臺天然亭閣
尼今方滿開喜好時節昨憐哉叶仙人
不至乎正市人以賞花矣此好風景也

에抵支道니시하儀音에達하였다기(元日)을經支呼來東支矣는티 氏의談話를據支則日本海航路는即舞鶴(舞鶴)과 松川(松川)과 釜山(釜山)元山(元山)等處威間의 往復航路를開始하고由至漸次呈通商關係가生起하였느니라現今은아직搭載물(貨物)의稀少한様이니로且海는麥威에下達하여 哈爾賓(哈爾濱)까지進去

明後十四日에 芝罘로 向해 야 출發 航행
라흐디라 ▲ 法國軍艦 대시대號 20昨日
仁川에서 入港 했야 今朝에 釜山으로 赴任
야 出港 했다 20호디라 ▲ 同月 13일
에 伊太利軍艦 말로 號가 釜山에 20호
港호였는지 明日에 互文 諸로 向해 야

高島氏는 瘦務를 끝마쳤고去十二日에 韓國
에 도착하였다.
이 날 五回券을 發行한 泥峴第一銀行에서 二
千圓券은 既已發行하였으나 外茲에 間高
陽本月二十日로 始發한 五回紙券이
有高大高大其模樣이 즉 既發一回券은

○董福祥이 쿠데타를率하고一敗玄蕃에
예 謂호지 라爾來雄心이 鬱勃하고야 可憐
지 吳支이 頃에 蕃徒를招致하고자 積
志眞側好漢아라其膽이 安祿山과 如玄
다 말其愚이 世界大勢를通曉치 吳支고
되어 獄夷의鬼가 되리로다

海云夢威에下達하야 哈爾賓外기進호

有 혼다 뉴타其模樣 인즉既發 一回券파행

의여 魔夷의鬼가 되리로다

三第種便郵物可認日五十九八年六月武光

▲古之偏黨은以權勢相附니라

▲元老元勳은爲其宗支고新進年少는爲

其支호나是亦者少論相眞乎아

▲爲宗者는日見續하고爲支者는日見盛

ホ나傳不至極大齡弱之弊歟아

慶娶이醫久애妓樂이繁盛호나素乏財

政으로何以抵當고百僚諸職事는幸勿念

月俸金文라

▲欲借外國欵印되서必難善後策아

收民間財ト티서亦少富饒客이라其奈貧

家費用多세將奈何아

▲近來守令方伯者生盡是忠君愛國人아

라捐財而爲國立고捐軀而爲君立디니忠

이雖繁이니國庶는營繕이라借問誰爲財

政掌權者는

▲然而有虎視者焉吏며有狐媚者焉이이

을有眼胡不見하며有耳胡不聞고

●剃髮之說하도라 혹은 선비의 푸본이

이동이 왕만하겠고 스며군명이라 흥은국

써보면 성화한번의 모다짜기 가어령자아

號號號號號號號號號號號號號號號號號號

百二千第

三

漢城新報

나홀날이요 할을 머울미년에 훈민색것든

향일에 제일회장이 서든 거순의 외로 잘되

티아의재는 조령이 훈민단나리며 풀우

든사상을 몬져 등지 풍엇기니와 이번두분

자되는 장애도 농상공부관인아와서 간접

에바탕부듯 호리로 타이면 청경례식에 각

국대사를 청호리 암죽자 꽁대사가 또여서

큰잔치를 훈련에 복직과 모양을 성각호면

반반하고 아울나지못할 애물원한 사제가

경시에는 될연싸 그리라 총는 말아자자호

더라

완고초는 갈오되 신례 말부는 부모에 깨끗

온비라 광히 회상 훈마니 아니라 호아미리

호리요 증자 증호품은 위호를 아끼 못호며

더 중호 마음을 닥끌 줄아지 못호고 그 중

털을 앗기기를 신하호니 업자우습지 아니

하야 씨다른 분을 보이께호 라호노라

대제장이 선후로는 존양이 제법 성양이 되

에 일품은 드라보자니 호마크고 커금 국제

눈성각지 못호고 담은 신례 말부 중에도 미

리털만 가지면 험가될는지 속으로 박호는

다사짓거늘 탐은 자죽만마자지 아니호면가

이전처도로 물정 명제 흡미니

자통령호는 이후로는 험이도 회소하고 디

수를 삼고 호영는 다포앗나이다 살각산마

더니 그걸인에게 절을 호고 업해 안자호그

나신서 씨에 한 노연나 빠말이 파스호더념

자맞치 아니호데 물루우히 누어서 요자부

동하고 과동왕부호는 것을 보지 못호했다

니신서 씨에 한 노연나 빠말이 파스호더념

陰曆七月份江南彩票已到

廣

告

準期廿三日開會諸

黃客欲奪大彩者請

速來購七月份榜目已到得彩甚多請來核

對領銀此佈

漢城美洞

德興號

號

經印直道

江

南

彩

票

已

到

得

彩

甚

多

金羅道雲峰郡居朴進玉彈大夫本郡阿谷

坪脊一石二斗落과 남원元川里脊

落

三

年

前

本

邑

朴

營

將

貴

鎮

本

人

의

五寸

叔父

燒

其

人

本

人

的

資

土

果

沒

京

鄉

其

地

其

締

結

雜

類

支

本

人

的

資

土

果

沒

京

鄉

其

金

羅

道

雲

峰

郡

居

朴

進

玉

彈

大

夫

本

郡

阿

谷

坪

脊

一

石

二

斗

落

과

南

原

元

川

里

脊

二

年

前

本

邑

朴

營

將

貴

鎮

本

人

的

資

土

果

其

羅

道

雲

峰

郡

居

朴

進

玉

彈

大

夫

本

郡

阿

谷

其

締

結

雜

類

支

本

人

的

資

土

果

其

金

羅

道

其

本大院陰曆六月三十日에 남署廣通坊
洞契人統人戶五家三十家券發見失
支此件呈于漢城府支立指證成出
正茲此廣告求之勿論内外國人支用
捨得支外至休紙施行客

趙秉惠告白

市內到處販賣店

大安門前

安昌號告白

日本郵船會社仁川支店
之票旅順太沽行
大連丸

利興洋行

滋養無比的衛生的飲料이라

漢城泥峴

元通會社

本大院陰曆七月份江南票已到準期本月廿
八日開會如貴客欲奪大彩者請速來購六
月份票榜自今已到得彩頗多新舊齊到來
核對預銀是荷此佈

木浦釜山馬關神戶大阪行
信濃川丸

八月廿六日
午時出帆

木浦釜山馬關神戶大阪行
信濃川丸

八月廿六日
正午出帆

仁川支店
日華郵船株式會社
之票太沽行
仁川支店

仁川支店

八月廿六日
正午出港

八月廿九日
正午出港

仁川支店
日本郵船株式會社
之票太沽行
仁川支店

仁川支店

八月廿九日
正午出港

仁川支店
日本郵船株式會社
之票太沽行
仁川支店

仁川支店

八月廿九日
正午出港

廣告

告

鍾路影劇場廣告

神妙之良藥消毒丸

本藥無毒氣(梅毒)或毒氣(梅毒)而有效力也

本藥色從來是葛根堂藥局에서發售者也

有名良藥이라

本藥是知何支那重難治宿疾이라도服藥

毫不意支那無不治之良藥이라

本油群山馬關釜山馬關神戶大阪行

木浦釜山慶原小島馬關神戶大阪行

信濃川丸

八月廿九日正午出帆

仁川支店

八月廿九日正午出帆

伏以有天而無地則造化之機息矣。有父而無母則生民之根矣。君子之道造端乎夫婦。故曰昔者下開國承家之際，未有否資於助者如虞之二妃周之姬嬪，蓋見也。伏惟皇上帝下生永祀至榮，下臨億兆之衆。乃使神位久曠，今七八年而宮事無統廟。厥無亞嗣，不獨爲今日之闕典，亦恐非後世之昭識也。幸陛下爲有地之天，然後兩露之威，以厚施臣等爲有母之子。然後乳哺之澤，得以歸父母。此臣等所以齊聲大号，敢干崇戒，諱伏斧鉞之誅於象魏之門也。謹案古者天子有皇后、夫人九嬪、二十七世婦八十。一御妻不率而處位有虛則於是乎擇其婦，德容而疎朋焉。故天子無再婚之文。蓋欲齊其老益其壽也。禁中事有非外人所敢知。然而幼侯出在乙未陛下之移擇俄館也。淳妃崩時，車旛犯危，難得使宗社再定。寡婦復安，及其封妃愈自敬謹，聞之內廷詔議，然加以謹謹，較於宗室惠澤及於朝部。則謂功在龍德，冠宮閨此皆陛下之恩。寧分位宗祚，幸甚。

◎俄國對韓政策。駐韓俄公使巴禹路厚所深懼而全國臣民之所共道者也。伏乞陛下急禮之，不可稍移。輿情之不可退讓降俞。寧分位宗祚，幸甚。

新設玄武教師，乃海參威東洋語學校。至定軍事。

濟生堂充信書。

(三)一千九百二年三月三日，締結馬

山附近不割條約，改訂特約適用。

婦故除普通外，總計稅關通過稅。

範圍是韓國南部元山一帶，以及支那。

舊田野支那三處，並賦滿。

枯苗勿渤海。

無以育天而無地則造化之機息矣。君子之道造端乎夫

婦故除普通外，總計稅關通過稅。

助者如虞之二妃周之姬嬪，蓋見也。伏惟

皇上帝下生永祀至榮，下臨億兆之衆。

乃使神位久曠，今七八年而宮事無統廟。

厥無亞嗣，不獨爲今日之闕典，亦恐非後世

之昭識也。幸陛下爲有地之天，然後兩露之威，以厚施臣等爲有母之子。然後乳哺之

澤，得以歸父母。此臣等所以齊聲大号，敢干崇

戒，諱伏斧鉞之誅於象魏之門也。謹案古者

天子有皇后、夫人九嬪、二十七世婦八十。

一御妻不率而處位有虛則於是乎擇其婦，德容而疎朋焉。故天子無再婚之文。蓋欲

齊其老益其壽也。禁中事有非外人所敢知。

然而幼侯出在乙未陛下之移擇俄館也。淳妃

崩時，車旛犯危，難得使宗社再定。寡婦復安，及

其封妃愈自敬謹，聞之內

(四)俄韓貿易章程改正特約。

外國產物免除除外，總計稅關通過稅。

廢止支那(大連鐵城)。

政權者進退，一時疏廳設立，正運動。

外本部是爲支那政治問題，轉化支那矣。

今日乃至支那近處，隨即問題突起。

我社之幹事，並至外戚及政府，上請。

或決定支那事，有志者之運動。

支那之餘，穀價倍登，立糧道乏絕。

日本救助濟，濟州島在海隅支那。

年歉荒之餘，穀價倍登，立糧道乏絕。

日本漁人，日本國。

是今古未有，支那領事，狼藉。

穀，支那，民皆踏舞稱頌。我俟之賢。

科考支那。

支那，砲兵隊，砲兵隊，砲兵隊，砲兵隊。

日本，濟州島，濟州島，濟州島。

支那，砲兵隊，砲兵隊，砲兵隊，砲兵隊。

日本，濟州島，濟州島，濟州島。

▲今者千百人이毀之呼! 小不動念者亡
豈非古今一望喜之人歟!

▲千百人與之無是處也! 千百人이毀
之呼無以怒之也! 呼惟我適意者亡亦鍾
人人類也!

▲滿朝百官이無不反對也! 千百人各道守令
이無不就職也! 千百人要然不動心也! 千百人
在我心者亡亦大丈夫也!

▲人之避之也而我獨不避也! 千百人之辭
之也而我獨居之也! 千百人謂忘身而報
國者也!

翁叔子曰：「翁叔子之弟，人謀欲避之。」多事之時，
亦未有欲捨負者。」又勇然自任者，豈
非豪傑歟？

金世人以智如經史也。蓋才以立而不知
玄旨無爾無庶者。蓋亦豈非公道者歟。

影
集

▲遇難者中和荀避玄門亦人之豪傑也上
拉玄門下
▲順今國川會沾繁文立闢請泛濱蕪空
雖有智謀者或云不可建此門玄
堂次皇香樹列其形多文物風氣竚賓客
名列那神來是玄門也勿納毫元寶丘不繼叶
百物之價格也斯高騰者互羣僚忘憂慮也
不擔任也引世事也誰與論工
▲所謂有智者也不參涉爲高丈立所謂多
才者足以兼取勝也豈爲能아라環顧一出

然支那商船에關한規則은 그 외相違함이
잇소니商船은全然이其灌泊한 港의法
律를從호마이라 그 런도로잇단刑事된지
犯罪者에隱匿하는所上가임스다 然호나
亡命者에關호야 서는잇단타고明瞭하야
니호며或은亡命者가수衆國의商船을搭
乗호였을時刻이며場所를必耍호事項으
로支는날이잇고亡命者수가其本國의港
灣에서外國의庇護를得할時는地方官이
其船내에臨호야事實을操究호야 그것을

밖에서 들을 수 있고 장소에 대해서도 자모도
방문업 성포를 일으니 그 곳에 사람들이 엊北斗
데 두 선스 이션 서비스로 가족을 데려온 것을 떠
가더이었다. 나중에 퇴직에 편의를 놓아 둘째에게
늦코 봉동이 질을 흔들고 겨울 습기 때문에
이자 저당 홀수임 등 종종 미리로 가슴을 짜
은 죽 혼령 향 암물 성인 손과 달리 둘째가 전반
을 지나고 견저를 활용하는데 견저로는 투수와
천여 날을 뛰어서 가는 터로 견저에 유통 노동
을 허락해 주거나 허락해 주거나 허락해 주거나
을 허락해 주거나 허락해 주거나 허락해 주거나

시의 삶을 가능케 하시려는 그들의 노력과 정신을 더 네 세월 위성에 유의함이 만족스러울지 모르겠다.
여러는 청량한 흐르기로 생활을 짜내 라고 미력을 끄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고집으로 생활을 짜내고자 하는 듯한 경지에 놓여 있다. 그들은 그들의 고집으로 생활을 짜내는 듯한 경지에 놓여 있다. 그들은 그들의 고집으로 생활을 짜내는 듯한 경지에 놓여 있다. 그들은 그들의 고집으로 생활을 짜내는 듯한 경지에 놓여 있다.

米商遭海賊 목포예기류호는 일본 미

진디아 모라아니하 라호아도 필명으
미자
롯督察이 다선전지명이었고 소품은 반드시

〔二〕가매즈事件이니 주식百萬英磅에 가라기유아(國亡命者)가 매즈가渡航호를 타고 홀수合衆國大西洋濱船會社호자유탁스호를 타고 영국船을搭乘하고 앉는다. 가라기유아(國亡命者)는 주식주인과同一船의 船泊에 同船하여 상황에 가매즈를 捕捉하고 企望하고 터를 떠나는 터를 長은 船客에 引導하고 그 터를 拒绝하고 且 船長의 비밀에 十四時間 출항한다. 나마를 要求하고 船長을 其例規의 免狀을 지어 앉는다. 코(코)三時 후에 船長은 未完이다.

此方法에關係를 크게惹起하는 날이種種
국際問題가 되는 날이 있나니라
이제一千八百八十五年부터一千八百九
十二年間에北米合衆國과其隣邦間에生
起事作이三三의列가잇는다 그를舉充여
左에示す지니

分에關호야 임의報導支契거니 왜該五
券은來二十日부터韓國內各支店에서
時에出市支기로決支이 東城出張所에
도其準備中이라 하더라

清外相及亡命者頗謀

밖에서 들을 수 있고 장소에 대해서도 자모도
방문업 성포를 일으니 그 곳에 사람들이 엊두
데 두 선수 이색 죠선비 이별하는 걸을 봤
가 되어 있다니 중동의 빙에 펼쳐 둘러 총을 놓
듯 코봉통이 질을 흔축도 겨우 숨을 허기여 라
이자 저당 홀슈임 등 총총 미리로 가슴을 치
은 죽 혼령 향 암물 성인 손라 달니 둘 아전 밤
을 지어고 견저를 활활 헛 있는데 죠선업 퇴로
천여 낭을 땠어서 가는 데로 겨우 예우 두 가족
은 풍파나 풍랑이나 풍파나 풍랑이나 풍파나 풍

시의 삶을 가능케 하시려는 그들의 노력과 정신을 더 네 세월 위성에 유의함이 만족스러울지 모르겠다.
여러는 청량한 흐르기로 생활을 짜내 라고
고마움을 모순장며 양천으로 동녀서 험난한
울릉도 채호교문지와 쌍가세에서 오래지
울을 가지 고 잇소니 위성의 힘 가더니 품에
도 경제상으로도의 노후면동곳시며 양기화
과 갖사며 탕진과 기와에도 하다 흥제구에
히비호는 저물니 무한하고 사업상에 드는
방침 되는 닐이 극히 심호니 싸근자는 일어나
나던지 여상시 안쳤다 열여 달색에 보사

도라와서 목포읍에 호수 옆에 대리
剃髮之利 무자불각호법성은 옛 풍속이니
의 말편히 너셔리회는 궁구처못호교신
로고처는 것 손 오오이지기리기니와 유자
홀선비는 엊지호야리처도 궁금처아니고
여리처도 성각지아니코한 것 일으기
것 손 쫓타쇠 것 손 그르다호며 터널을
남의 넋은 글 으다호 야완묘를 저며
여아리석은 백성파 할 박회로 토라가는
방금 턴하에 아직 싹지 아니 혼나라는

부녀가사오명되고도^{부녀가사}는^{오명}되^{고도}는^되는^다
되설법성의^{설법}은^이나^라과^과는^가는^되는^다
도제^제하여^하가^지고^고저^의세^리술^술을^을난^난만^만이^이미^미
운^운후^후에^에그^그날^날밤^밤들^들후^후들^들밋^밋사^사발^발기^기울^울기^기드^드리^리
서^서돛^돛술^술롭^롭히^히달^달고^고달^달라^라나^나나^나부^부지^지하^하쳐^쳐기^기이^이
라^라들도^도인^인삼^삼당^당은^은한^한신^신이^이나^나술^술을^을보^보종^종한^한다^다

시의 삶을 가능케 하시려는 그들의 노력과 정신을 더 네 세월 위성에 유의함이 만족스러울지 모르겠다.
여러는 청량한 흐르기로 생활을 짜내 라고
고마움을 모순장며 양천으로 동녀서 험난한
울릉도 채호교문지와 쌍가세에서 오래지
울을 가지 고 잇소니 위성의 힘 가더니 품에
도 경제상으로도의 노후면동곳시며 양기화
과 갖사며 탕진과 기와에도 하다 흥제구에
히비호는 저물니 무한하고 사업상에 드는
방침 되는 닐이 극히 심호니 싸근자는 일어나
나던지 여상시 안쳤다 열여 달색에 보사

리에 서 머잇고 담은 상투 만찬 한 꽃에 쓰리
스니 이 무숨의 사인자 일노 써 불진 터
동자에 빼는 우금금 훈날이라 한명이 진
에 잇슬진 터 싸지 아니 혼사롭이 오르
리를 빛지 못하고 잇는 것 파머리 싹거져
님식 가업는 자에 페불편이 엊지하로에
거위는 흐리요 이곳처리히 가bullet 혼것
아지못 흐먼어리석은 물건이 요리히 물
고도 호히려비향을 풍흐지 아니 흥연고
하고 어두운자라 사물이 엇지어리석고
두운터로도 라자리요 사롭마다 맛당이

나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은 머리를 비스며 망설을 써고 모양은
다 찰인 후에야 나서니 전후를 통계하고 면밀히
의문을 말하기 시작된다. 레임스 리라의
죽이 안 천황에 비를 터고 효선사를 창건한
본죽 미리가 속되고 흔데 죽을 때 김봉이
나에게 나잇고 남은 학제 만찬 람장에 푸른

시의 삶을 가능케 하시려는 그들의 노력과 정신을 더 네 세월 위성에 유의함이 만족스러울지 모르겠다.
여러는 청량한 흐르기로 생활을 짜내 라고 미력을 끄손한 며칠간으로 동네에서 활동을 풀풀하게 헤문자와 짜가세여서 오래지
물을 가지 고 잇소니 위성의 힘 가더니 흐르며 도로의 노후면 통곳시며 많지만 과갖사며 탕진과 기와에도 허다 헤제구에 허비하는 저물니 무한하고 사업상에 드는
방침 되는 닐이 극히 심하니 짜근자는 일어나니
나던지 여상사 안쳤다 열여 달색에 보사

石幾斗落見欺買力勿售而名
內外國人見欺買力勿售而名
渠州居選弘基告白

市內到處販賣店

(電話二十七番)

漢城美洞

德興號

號



第三百七十九號 八月五日 大限
書院丞申弼熙馳詔 宗廟景孝殿奉香 學秀金命兼任鐵道院監督下法部法務局
鑄主兼任鐵道院監督八月三日 ▲ 詔曰 稟監理署主事中翊熙吉州監理署主事全
捕姦以來 詔曰 命秘書院卿尹容植 金長金鉉圭任侍從院左侍御敘判任官八等
李元鑑金任法部主事敘判任官六等

健构 鄭寅日 河丙璣

水

宮廷錄事 ○ 詔曰 奉請閣臣入侍八月一日 ▲ 中樞院議官洪鍾宇山諱疏 批旨
任仁川監理署主事敘判任官六等 中所住處則以爲地方官來傳 論駆往傳論于安山郡領敦寧院事沈舜澤
翊熙金任吉州監理署主事敘判任官六等 徐文全學秀金任內部主事敘判任官六等 鄭
完謨金命成川郡臨時郵遞主事李慶鎮
備海南郡臨時郵遞主事 李賤天金命雲
氣鏡一樣太子宮太子妃宮氣度平賴鄭相本
奏 菅日知道八月三日 八月三日太醫
任官六等 李建夏以上八月一日 依願免不
願免本官 军部主事張媛求法部主事李
濟善金命相本依願免本官 法部主事李
濟善金命相本依願免本官 法部主事金
任仁川監理署主事敘判任官六等 徐文
輔金任吉州監理署主事敘判任官六等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第三種郵便物可認

斷

變

論

근일단발호는명아니린다는소문이량자
호야임의眞副신보에도그아회독설과편

불편을제설명호리아니와사회여론에
티호야성명거의에는교로대략우전을단

술호네리국을우리대한인민중 혹은
단방홍의편호는당국은라동다혹은사발호

면금수와갓다호야총신언론이흔걸로지

아니호니오화라이 및 케비리가지밀호는

이에개운마티원을청호노라제상사품

이다편홍을종교불편함을파함은인자상

정이라신데밀부는유자부모라불편화상

이라호나파연교라호번번리속비호는웨

색그며말홍을들은웨뷔이호고아상호일

아아나도아반어민으로만부모에바도도

하고속으론는양자부마되고증호아그리

호냐아니라고부도온제국방장포를

설호고의복으로말호미아전에온방석만

호갖을쓰고장상곳홍증을암호단이

다가지금에이르려는제목별호를쓰고

고소마인는주역가토리호니웨~월연교

그도또호종전호는서로이아위성상예천

롭고사임상제상교재상예불리호을교

스나비에구심구는다그다호고둘저는부

모에개마든거자란면속답애이르기름재

스호재미라자락이음식에들면부모령호

아홉방치안호호나오고약물같이

기예부모령호이호행치암호고진심효도

하는사통으신각호일이오세제는사

기나와좌우에하인을마니세여부의호

의한돌들이라울리들은단발호라는형이
나리는거슬도케너이하고로말송이무궁

부터나온거서라니익증들을죽여양인들

은시간은황금이라호다니엇지서양뿐시

간을았기리오석일하우씨의촌음을았기

불터나온거서라니익증들을죽여양인들

은시간은황금이라호다니엇지서양뿐시

간을았기리오석일하우씨의촌음을았기

이되야엄害羞셔티포알이들이와도같지자

동식동식엉덩이를누루면서흡사히증명

든명인못잡고가듯말간성호사람이병인

던지밀문호실만이잇기든신문사로조세

지북호서며도의문호짓습

④俄公使向韓 ⑤禹路厚氏前에駐韓公

使로在留호았는韋具兵가去十六日에임

의俄京에서離호야韓國을向호야發程호

았다호더라

⑥局長復任 警務廳警務局長河相驥氏

가仁川監理를復任호고로前警務局長劉

羅甸氏가復任호였다디라

漢翼氏가復任호였다디라

⑦英艦入港 再昨日午時에英國軍艦亞

가仁川監理를復任호였다디라

이기와겸파민족을제사나지못할것

들은간담비단나풀로비단을제때문

거사아니라일본을되도록아일률을제때문

에먼자호는거사울치안타호리니진설노

그리호친되~단군썩초의복식호고증풍

는거슬보면잇지부려운은음도업는호우

죽히조형제로빨나온제가제를제작을

이제상에우리음식호호나마리를제작

외면으로라도호가지씩진보호면위선위

● 東眼西眼 南北生

● 韋貝氏가三爲俄使호야將來來槎호다

호나巴氏銳敏을韋氏沈重으로以호야代

호인가

● 某局長이大臣을對호야曰生等이閣下

의命을譁從호나閣下가果然生死與奪의

權이有호니我生을도호可히期치못호지

라초라리冠을掛호고山林에退호만不如

호다호고丘長太息호야曰비록 大皇帝

면是豈微妙利權政器이아니리오

● 俄加滿州橫斷鐵道八十年間權利를獲

里則鐵道會社租地가된지라堤로以호야

면是豈微妙利權政器이아니리오

可認物便郵種三第一

日十二月八六年武光漢城新報

● 駐日韓使 李容泰民正義日에 다른本駐
副公使로被命호아스나赴任호지아니호
디니近日에赴任호기로內定이되였다.
說이有호나果然實行호되자호디라

● 日員來期 京釜鐵道總務員虎嶺三良
氏가去十七일에東京에서發호았는되釜

山으로經호야來韓호야暫時滯留호하여

더라

● 監理復迭 在用監理徐相集氏가日前
에疏遞호다호마니茲에聞호즉去十七일

에遞任호고監務廳監務局長河相驥氏가

復任호였는디라

● 小松宮殿下 由今英國에서歸國호는
퇴在支선파小松宮殿下와其同行者는本

月六日에俄國莫斯科府에서離發호시

十七일에清國國境이오十九일에哈爾賓

이오二十一일에奉天府를通過호사고二十

일量에旅順에着호했다가帝國軍艦을

운三十二日當아日本에서發호야旅順으

로快速直行호는十五日에殿下와同行

者를載호고橫須賀港호로直還호리연기

因記호나다歐美各國漫游中에在支松方

正義伯爵同行者도然下同호에隨伴호야

歸朝호다호디

● 兵制擴張 韓廷에서 서도壯大惑鬪兵式

有支使기자와今番에는規模을擴張호하여

원故로各兵万을集호하고는正直班을下

可不變制호지니昨今에元帥府에서는騎

兵一個中隊外砲兵三個中隊外備衛親衛

鎮衛의各隊도混成호야凡萬内外외兵

細別호친히日本居留地戶數가三百八

十一戶오른다가一千五百三十六戶오거

員을團集호아니無謂에 分호아臨時一師

호성立되자부호令호判決되니其理由는

의調查를據호July月末現在戶口는戶數

日오女子一二千一百六十八戶라호며또

三引渡호請求書를正當호이라호지안

充분차吳玄五

告

화기증명事件後報 償金一百四十萬
元一事로大韓政府와 美公使間에協定호
는定期限本月十五일은 일의過호였더니
茲에聞호期限은陽十月月初一日까지退

定호가로協定이되였고 美人社團에서

水器會社를創始호야役事를始作호바흐

라호였다디라

● 開會選任 本月二十五일에東京青年

會館에서京釜鐵道會社의總會를開호야

監查役選任事件과取締役會長代理事件

과決算報告等을決議호아니라호는되

地股本주에대는委任者를會社로通知호

내호기로各股本주에개注意書를發호하

다호디라

● 馬山電報 馬山에서來호特

電에云호였스되去十八일下午四時에日

本軍艦金剛号와北徵號호가釜山으로委초

人호하였다호디라

● 鎮南病報 鎮南浦十三일通信을據호

則八十名虜列刺患者가다死亡호야途上

에猝死호고잇다호며十七일에至호야九

十名의患者가發生호야其中五十名은死

亡호고自今勞役者에感染호하는者上不少

者를載호고橫須賀港호로直還호리연기

도로호는

● 兵制擴張 韓廷에서 서도壯大惑鬪兵式

有支使기자와今番에는規模을擴張호하여

원故로各兵万을集호하고는正直班을下

可不變制호지니昨今에元帥府에서는騎

兵一個中隊外砲兵三個中隊外備衛親衛

鎮衛의各隊도混成호야凡萬内外외兵

細別호친히日本居留地戶數가三百八

十一戶오른다가一千五百三十六戶오거

員을團集호아니無謂에 分호아臨時一師

호성立되자부호令호判決되니其理由는

의調查를據호July月末現在戶口는戶數

日오女子一二千一百六十八戶라호며또

三引渡호請求書를正當호이라호지안

充분차吳玄五

告

가二千五百四十一日오清國居留地戶
數가三十四戶오人口가一百三十七口오
韓國人戶口는二百三十六戶와九百十九
日一라호디라

● 治外權及亡命者庇護 (續)

米國公使의說을據호즉此際에니가라기
유아政府는가메즈를逮捕호權利가있고

其後에往復호公文中에公使指令에對호

야國務卿에나도의回答이左와如호디라

가메즈는自進其法則호야國法治下에入

호이明達지라故로船長은要求에應호야

其地方官에引渡호는재當然호바라凡

一國의商船商業의目的으로以支여他國

港에入호석에는一時其國의法律에屬호

고其裁判權에從호지아니치못호비라기

호야特히條約上規定이잇는例外에는其

港則을遵守호하는茲에喧嘩을要호자아

코자호나라又地方裁判權의範圍에호호

니호바라호然當대一千八百八十七年

六月二十一일에나가락기弁아국과合衆

國의間에訂約호條約은左와如호條款이

一一호스나瀛船은治外權을

하도임스나瀛船은治外權을

外權에 잇송의라
四가에즈引渡의要求는 담안口頭에만
形式上欠所니라又니가라가 유아當事
者니가船長에出頭를要求호는書面은
何等의目的으로要求호는記載지 아님
이라

五指定호時間에出帆호것은罪戾
시엄고 담안約束을破棄호私訴를提起
호에過처아니호지라

投書 박승의

음녀질월심일호야의 월식은 청명호고
풍이처호하고로소광교근대에서술취호
천구가가자가세리미릉호더니경위원평
복습경이로상호람으로지나다가불장관
자호고 달녀들이 무수랑타호거들그사람
들이 무죄함을발명호죽호년말이뉘와감
하시비를호리나호고더욱광파호조
음에여려이 많유호양미니노든사람은도
시홍문동근처로오루나리며고성되어인으
로광규남영호고사를포면복설이무공
라간자라별술경이터소광교로종도로나
고도르집이무쌍호니디는는사람이두려
워서길을돌아폐호야가나경위원별술경
의형위가이곳을진되평민이잇자리를피
하도임스나瀛船은治外權을

道觀建設之說. 殿 설을 들으니 양근용
문선에 닥가 나라에서도 광을 짓고 봉도
나라에서도 광을 짓고 봉도

고다닐수잇스리요법당호자이무면호기
심호가로이에 두어자별호노라

다호는 되어는 경무국장하상미씨가 청북
의법을 모방호야 국가가 개진총호는 사업

이라호디라

中署瑞麟坊第十一統加一戶瓦家士八間
判刻文券券失放로茲에廣告호오너내

上米塵越邊布本薩 金盤祖 178

韓光武八年八月十二日
漢城新報第十一號五百一十

廣告

大阪商店株式會社
汽船仁川出帆廣告

木浦群山馬山金山	馬山神社行
白川	八月廿四日入社
木浦群山最頭長崎馬場神石大坂行	八月廿五日入港
白川	八月三十日正午出帆
木浦釜山馬關神石大坂行	八月廿四日正午出帆
木浦釜山馬關神石大坂行	八月廿二日入港

八月廿日正午出港
八月廿六日正午出港
八月廿九日正午出港

大清國寶

卷之三

大清光緒三十一年正月廿四日出報

龍山長驅馬上行
九月廿日午後五時出帆

芝罘區順大酒行

圖章是兒失忘，
外國人乞勿歸。
行乞者

啟者陰曆七月份江南票已到埠期不月日
準期廿八日開會諸貴客欲奪人彩者請速來
領此佈

○鼎上佳酒類
○國外酒類
○新舊酒之分
○世界各國人之飲食
○特約大販賣店
○津城酒館
○電話二十七號

An illustration of a vintage-style glass bottle. The main label on the front features the characters '宮內府御用' (Imperial Household Agency) at the top, followed by '惠比壽麥酒' (Ebihi Sapporo Beer) below it. There is additional smaller text and decorative patterns on the bottle, including 'EBIHI' and 'SAPPORO BEER'.

이월문동정유식회사
卷 정형재督寫

상동지간연초광고

金匱要略

卷之三

漢文新報

明治八年五月廿二日

奏任官四等 漢城府裁判所檢事試補申

願免本官 法部主事楊元夏▲任法部主

慶均▲任漢城府裁判所檢事試補敘奏任

事敘判任官六等 宋炳斗(以上八月三

官六等 正三品尹觀柱(以上八月一日)

日△依願免本官 穆書院丞李時宰、義

鑑令朴政俊、昭靈園守奉官金聲烈、軍部

主事李容準、法部主事宋炳斗、仁川監理

鑑、康津郡守李憲翼、長興郡守姜永瑞、

量地衛門技手補金金鳳、商工學校教育官

韓山郡守李俊相、利川郡守沈瑛榮、江陵

郡守朴注東、南海郡守權明洙、巨濟郡守

奏八月三日奉旨依奏 掌禮院判臣金

疇鉉謹奏因 皇太子上疏 批旨陰曆

七月二十五日 萬壽聖節 皇太子親王

鍾淳▲任金浦郡守敘奏任官六等 前郡

子親王致詞後百官進表有禮之節依例

受之節依例磨鍊 掌禮院卿臣金疇鉉謹

奏陰曆七月二十五日 萬壽聖節 皇太

子親王致詞後百官進表有禮之節依例

磨鍊之意謹上 奏八月四日奉旨依奏

前郡守李弼永▲任南海郡守敘奏任官四

節何以爲之乎敢 奏八月四日奉旨親

等 前郡守李秉翊▲任巨濟郡守敘奏任

官六等 前郡守權明淳▲任草溪郡守敘

奏任官四等 前郡守李哲鑑▲任盈德郡

奏陰曆七月二十五日 萬壽聖節 皇太

子親王致詞後百官進表有禮之節依例

磨鍊之意謹上 奏八月四日奉旨依奏

前郡守李弼永▲任南海郡守敘奏任官四

節何以爲之乎敢 奏八月四日奉旨親

等 前郡守李秉翊▲任巨濟郡守敘奏任

官六等 前郡守權明淳▲任草溪郡守敘

奏任官四等 前郡守李哲鑑▲任盈德郡

奏陰曆七月二十五日 萬壽聖節 皇太

子親王致詞後百官進表有禮之節依例

磨鍊之意謹上 奏八月四日奉旨依奏

前郡守李弼永▲任南海郡守敘奏任官四

節何以爲之乎敢 奏八月四日奉旨親

等 前郡守李秉翊▲任巨濟郡守敘奏任

官六等 前郡守權明淳▲任草溪郡守敘

奏任官四等 前郡守李哲鑑▲任盈德郡

奏陰曆七月二十五日 萬壽聖節 皇太

子親王致詞後百官進表有禮之節依例

磨鍊之意謹上 奏八月四日奉旨依奏

前郡守李弼永▲任南海郡守敘奏任官四

節何以爲之乎敢 奏八月四日奉旨親

等 前郡守李秉翊▲任巨濟郡守敘奏任

官六等 前郡守權明淳▲任草溪郡守敘

奏任官四等 前郡守李哲鑑▲任盈德郡

奏任官四等 漢城府裁判所檢事試補申
可證第廿三日正三品尹觀柱(以上八月三
日)六體物便三月三年郵可證第廿三日正三
品尹觀柱(以上八月三日)六體物便三月三年
武光六年八月廿六日發

官報抄錄

時署理警務使臣李容翊謹奏醫學校教

官金益南臨時衛生院導師差下何如謹上

奏八月三日奉旨依奏 掌禮院判臣金

疇鉉謹奏因 皇太子上疏 批旨陰曆

正三品尹觀柱(以上八月一日)五十二日

奏八月三日奉旨依奏 掌禮院判臣金

疇鉉謹奏子親王致詞後百官進表有禮之節

依例磨鍊之意謹上 奏八月四日奉旨親

等 前郡守李秉翊▲任巨濟郡守敘奏任

官六等 前郡守權明淳▲任草溪郡守敘

奏任官四等 前郡守李哲鑑▲任盈德郡

奏陰曆七月二十五日 萬壽聖節 皇太

子親王致詞後百官進表有禮之節依例

磨鍊之意謹上 奏八月四日奉旨親

等 前郡守李弼永▲任南海郡守敘奏任官四

節何以爲之乎敢 奏八月四日奉旨親

等 前郡守李秉翊▲任巨濟郡守敘奏任

官六等 前郡守權明淳▲任草溪郡守敘

奏任官四等 前郡守李哲鑑▲任盈德郡

奏陰曆七月二十五日 萬壽聖節 皇太

子親王致詞後百官進表有禮之節依例

磨鍊之意謹上 奏八月四日奉旨親

等 前郡守李弼永▲任南海郡守敘奏任官四

節何以爲之乎敢 奏八月四日奉旨親

等 前郡守李秉翊▲任巨濟郡守敘奏任官四

節何以爲之乎敢 奏八月四日奉旨親

等 前郡守李弼永▲任南海郡守敘奏任官四

節何以爲之乎敢 奏八月四日奉旨親

中安國該經費是道內各郡에 편납호 되新一壓制호 업디 더고

種三便郵可認物

光武六年八月二十二日

城漢新報

(三) 第一百六

艦號와 금剛号는二十日朝鮮에 출입本練習艦比
鎮海港으로 입항하였다.

治外權

(續)

此事件이 發生際に 대한米國軍艦의 一隻

이라도此地에 있다면該艦長과米國公使

가協議하여 일국으로서 그 기관을 구할

이가에 被捕를 遭受하는 權이 있다. 그러나 著者

으로 該艦長과米國公使

拒絶하고 있가니該艦長은 越權에 罷免

되야自國政府의 謹責을 被受하고자 罷免되야

가라. 委유아國民의 誓言을 揭露하는 奉獻을 有

月八日에 陸軍將官과 軍人를 遣捕하고 被捕

은 韓府尹에 대한 訴訟을 起訴하였다.

大平洋漁船會社의 비에 응나는 船主

라단가地方官吏의 대轄을 被受하고자 罷免

하였으리라.

二二파란지야事件 一千九百九十年八

月八日에 陸軍將官과 軍人를 被捕하고자 罷免

하였으리라.

이하에 陸軍將官과 軍人를 被捕하고자 罷免

하였다. 船主를 被捕하고자 罷免하였다.

유도에 上陸하여 船主를 被捕하고자 罷免하였다.

滋船은 구아메미국港에 寄住하였다.

나라

當地에 두 번째 되는 장은 바카오카로 말미
암이 쇠원처 풋호미에 앉고 작일심상일에

세번차장에서 는 토이날은 씨름의 더승호

고지인 광덕의 구경이 그 저릿기로 구경문

에 참당하기 습관 보령대가 더 호나물천

네라그시제를 조세아만호면장에 나를 물

미미기린는 전일의 서호화려못호모양일

전종에 소가제 일인티 소가나가는 모다슈

심판이나 되는 실상 흥정되어 미는사오필에

지나지 못하고 그 다음과 실천의 아들은 실

상이 멀뚱잇쳐 못되든 빠라 말호 잘게업고

술집이 사오십처가 되는 터총가의 동부들

도장에 와서 술마사기를 훈운 치로 알며란

장노을을 허락하고로 잡과 군과 술을 떨일

너라장이 성서되니 멀칠되자 못호주장되

의 흥왕호가는 멀디 훈년자부 살릴도 가왕

되호후에는 물문가지 흥왕호니와지금

우리라도 물건나는 버시 쥬장인 되아모즈

야 그려 훈지 물만 훈물건나는 멀지 면변처

찰되도 새우리마라는 바아리아아진은 쿠잘

이 압셔져 그려 훈자소를 아명나나저 못호

파란지아라호는 차를 훈파리오스大統領

와 하에 陸軍將官과 軍人를 被捕하고자 罷免

하였다. 船主를 被捕하고자 罷免하였다.

사공립총에서 훈포도浦川이라는 사람과

이조재이효신호에 훈았다. 디라

그 벅풀꽃들 라호족 그 유골덜은 포년리를

禮式院之禮式 상유호 저조니면 하필

유심인조니라. 호니파연회말이 아니라로다

본사례의 자방으로 근리에 레의 가회이 흠

지기호포남이 삼명이 일시에 달려 들어포

비안으로 잡아 되려쓰 흐이 일어나 숨취

유심치 아니호나 엇지 탄식 흘마시아. 더리

유잇된지사의 말삼을 들으니 각부를 자

음운수니라. 민심이라 일자르고 관장들을

지기호포남이 삼명이 일시에 달려 들어포

현우로 종회 낭자이서 두두다리고로금하

명이 하류호다가 그 영상을 보고 백국술을

율구원홍서조약동파봉동이와방도등을

민우로 종회 낭자이서 두두다리고로금하

적호지 못호야 둘상호자니 날조리고성명

호전장의 관풍과 가월이은지마사령일은

노약이 석젖는 터수호가 뜨거워 품자임되

원운은 래모를 술상호라는 연교니라. 만년대

판들이 레의 둘술상호면본리의 지방에

울에는 명문을 말기지 않는 연고니요례식

를 빼고 그려 안짓다가 도일이니서 경례가

분명호다라호니이는 달음아니라 다른마

본죽그하인들은 손을 보면 반드시 담번비

나며보아도. 마을하인들이 손을 보고 경

예호지 아니호다나 근일례식원을 지나다

이조재이효신호에 훈았다. 디라

나. 빙수호는 훈포도浦川이라는 사람과

이조재이효신호에 훈았다. 디라

日本郵船會社仁川支店
圖章見失
内外國人是勿爲施
行者各

李主選告白

芝罘旅順太古行

九月九日

芝罘太古行

八月廿六日
午後五時出帆

日本郵船會社仁川支店

陰曆七月江寧彩票

啓者陰曆七月江寧彩票已到準期本月廿一

日

開會

如貴客欲奪大彩者請

來購

七月份

榜目已

到得

彩甚多

請來核

對領銀

此佈

速來購

七月

份

榜目已

到得

彩甚多

請來核

對領銀

是荷此佈

核對預銀

是荷此佈

行者各

行者

樂
天
游
樂

明治三十三年十一月八日
曜日

同金之秀、同李澤純、同朴泰永、同張成煥、仁川監理署奉事洪陽載、主相監理署
奉事金文淳、惠民院奉事鄭寅吉、同閔丙璇、同沈貞澤、同李衡慶、同李允熙、同李
賡來、同吳正善、同林世榮、同金昌漢、同金昌烈、同
具勳書、內部地方局長沈相輝、任順慶、同
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南延七玄任內
部地方局長敘勅任官四等、從二品沈相

▲補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附陸軍步兵副尉張忠植▲任陸軍步兵副尉、陸軍憲兵金思億▲補親衛第四聯隊第三大隊驅官、陸軍步兵副尉金思億▲補鎮衛第四聯隊第三大隊副官、陸軍步兵副尉申杓允補鎮衛第二聯隊第一大隊、陸軍步兵副尉文熙善、陸軍步兵參尉李萬基、同金顯來、同閔彌鎬、同白南圭▲補鎮衛第三聯

10. *Leucosia* sp. (Diptera: Syrphidae) was collected from the same area as the *Chrysanthemum* plants.

官
第
二
千
三
百
七
十
二
號
八
月
七
日
本
照
宮
廷
錄
事
中
樞
院
議
官
徐
相
部
辭
職
疏
批
旨
省
疏
即
悉
所
請
依
施
八
月
五
日
以
任
故
辭
金
及
上
各
部
叅
督
官
製
奏
王

一、金銀館。朴常來、李鉉廷、韓泰駿、具
夷喜、朴灝權、任仁川監理署主事敘判
任官六等。洪陽載、任吉州監理署主事
敘判任官六等。俞文濬、任願免本品
法部主事金炳明、金任法部主事敘判任官
任官六等。

趙金任軍部參事敘判任官六等 李鍾契
金任商工學校敘判任官六等 中謙
熙、宮炳鉉、崔羽鑑、任斗榮、金相葵。高
義衍、朴敘判任官四等、實立小學校教
員嚴星九、金任仁川監理署參敘判任官六
等、金鎮協、任吉州監理署參敘判任
官六等、李敏秀、金任憲民院參事敘判任
官、徐相郁、金儀願免本官、軍部主事李鍾契
隊第一大隊附、陸軍步兵副尉朴桂勉、
同韓弼相、金補鎮衛第五聯隊第一大隊附
陸軍步兵副尉南相鶴、任陸軍一等軍司
陸軍二等軍司全在興、命停職、金鎮衛第
五聯隊第一大隊陸軍步兵樂尉閔夏植、
任法部會計局長敘奏任官二等、正三品
徐相郁、金儀願免本官、軍部主事李鍾契

官六等。累越都守，金進深。七月二十八日陞敘判任督正等。度支部主事徐丙弼七月三十九日公依願免本官。軍都主事劉鑑鍊。差授陝甘道。其馳同李載鳳同金炳洙、同李寔植、同金演昌、同李啓養同申澤雨、同朴昇璽、同金玗深、同李鍾衡。

六等。九品李勣源以十八月五日之歲，願免本署。忠清北道觀察府主事裴永琪、濟州牧主事朴英緒、任忠清北道觀察府番事鄭舛任官六等。朴經夏、金任濟州牧。注事敘綱任官六等。康郿林（以上八人）六目。軍部經理同長李康夏右上該。外文牒上印稽澑支叫有亥目是以譖貢第

官六等。張在植、李承台、洪思永、李兢、
增、^古應奎、李南教、尹友榮、李容祐、辛
乘默、沈相甲、^本給一級俸。漢城府畿判
所檢事試補尹觀任、以正八月六日、^{乙未}依
願免本官。曲忠清、南道觀察府番事崔昌祿、
忠清北道觀察府番事朴綜夏、咸鏡北道觀察
府番事李明基、濟州牧事康郁森、任
崇、任崇部主事李文熙、三川監理官趙中益、

10. The following table gives the number of hours per week spent by students in various activities.

▲任惠民院議事參判任官六等成樂德洪鍾冕²李忠濟³李容德⁴洪洋貞⁵鄭元永⁶水炳⁷高應道⁸趙世權⁹蘇秉桂¹⁰以上十八人
月酉日○依願免本官 余廟學參金多完¹¹太僕司主事¹²董玉鎮¹³順陵¹⁴希光¹⁵南廷士¹⁶尹尚衡¹⁷之出
五郡主事¹⁸李進善¹⁹法部主事²⁰尹興培²¹

八月五日 軍部
○第三千五百七十三號六月八日金曜
○宮廷錢串 ○詔曰命從二品沈相翊爲
內部地方局長 入六月一日
○布達 ○宮內廢官制中改正這三件事
左文列定奪之四月八日六月一日

憲民院參事敘判任官六等 徐相春▲朴
炳善▲黃漢性▲朴漢鳳▲李冕謙▲呂永
祚▲盧秉禹▲蘇台斗▲尹衍榮▲金炳錫
▲任忠清南道觀察府參事敘判任官六等
李錫祐▲任忠清北道觀察府參事敘判任
官六等 ▲林世郁▲任咸鏡北道觀察府參
事敘判任官六等 徐相春▲朴鎮協▲吉州
監理署主事李敏芳▲命寧禮院少卿敘勳任
官六等 ▲宮內府特進官鄭顯英▲任秘書院丞敘奏任官六等 ▲正五
品金炳洙▲任貞陵恭奉敘判任官八等
尙衣司主事成禱永▲任尙衣司主事敘判任
官六等 ▲九品李龍雲▲任軍部主事敘
判任官六等 申說雨▲任仁川監理署主

1960-1961

監理署主事李直應、吉州監理署主事李源金、任宗廟署令敘判任官六等、永福殿令升任永祿殿令敘判任官五等、宗正院主事金教憲、任宗正院主事敘判任官五等、李詒慶、任官七等、王文英司主事

布達第八十六號 第二十六條 宮內府所屬職員水輪院官制中公奏誤令增置該司庫課課長三人奏任 按師五人奏任隨時增減 主事三人判任技手十人判任隨時增減

10. *Leucosia* *leucostoma* *leucostoma* *leucostoma*

宗正院主事叙判任官七等
宗正院主事趙秉憲任官七等
宗正院主事叙判任官六等
六品金筆領
▲任順陵恭奉叙判任官八等
權仁誠金
任軍都主事叙判任官六等
崔周泳金任事
法部主事叙判任官六等
金炳明▲任事
民院主事叙判任官六等
閔永昌鄭在鄭

欽任及節制。給一紀作一兵部員外郎。院督師李圭商。七月十七日。乞願免本官。軍部胥事崔周泳。任軍部主事敘判。閔免本官。順陵參奉權仁燮、軍部胥事閔丙徵、商工學僕官李中鉉。同閣泳樞機。

書院丞中彌熙驥詔宗廟永寧殿鼓
孝殿奉筆摘奸以來八月八日▲掌禮院少卿尹忠求辭職疏臣批旨省疏具悉所請康煥然李浦寧金海寧葛如玉李致勇
依施八月七日▲正三司使金允植金之任明鎮淳以至八月七日臣依願免本官洪
叙任及辭令金免本官▲鎮衛第四聯軍部主事申說兩慶尙北道觀察府主事權彩洙▲任軍部主事敘判任官六等尹弘求▲伊慶尙北道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申學均以至八月八日

卷之三

直
正
社
說

俄撤兵與韓之關係

方今清國形勢已不甚安穩，在韓其安危可知。吳喜芝、李相衡、金容植等各國交涉官漸漸時，當由俄國撤兵約定存亡，是

平和議結，立下約定，是時當由俄國撤兵，並無此約定。

肅一帶，反旗大滿，蒙古陰然，俄廷的命令奉行，西藏也將次清俄共治。

斗下而附，滿州禍亂，馬賊再起，要以之立，俄兵之撤兵，又不能然。則更計四大隊兵力，牛莊增駐，然則清國平和克復之名，有矣。

之勢，大兵之勢，我儕之勢，此變報臺接，隣邦形勢，憂曇，其勢甚。

我儕之勢，亦非此，吳喜芝、李相衡、金容植等，皆為之。

其變勢，吾知其反徒，援支者十

處還宮，韓人之勢，久矣，平和議力主之，而

國難，難以解，此變報臺接，韓國馬山浦獲得，必要極論，其勢，

憂曇，其勢，亦非此，吳喜芝、李相衡、金容植等，皆為之。

行計，吳喜芝、李相衡、金容植等，皆為之。

滿州人民，能保全，而韓人之勢，不存，此

言也。一，此，不，可，道，理，有，矣，又，如，支，

大，謂，韓，人，此，俄，兵，不，駛，滿，州，鐵，道，

量，可，保，安，此，吳，喜，芝，而，俄，軍，不，存，矣，

而，接，壤，支，牛，其，安，危，外，消，長，而，韓，局，

故，至，俄，兵，久，駐，韓，其，安，危，外，消，長，而，韓，局，

和，平，危，機，者，不，可，謂，韓，其，安，

歸，國，守，三，個，月，而，得，踰，其，安，危，而，倘，過，

二，個，月，則，每，朔，日，貨，三，百，元，支，給，其，安，

再，過，二，個，月，而，不，得，回，到，其，安，危，例，

立，

②勅許合同 加藤增雄聘川事屢次

記載，於此，而，皇，上，陛，下，御，印，三，昨，日，

勅許，賜，其，安，危，速，合，同，調，印，于，此，

立，

③勅諭，勿，下，其，安，危，而，此，而，

農商工部，頤，間，官，履，職，加，藤，增，

雄，氏，合，同，于，法，月，曆，日，政，府，會，議，提，出，

支，亞，可，票，加，四，五，否，票，加，三，而，該，案，件，于，

上，奏，裁，可，後，農，部，外，部，聯，署，于，

大，韓，國，農，商，工，部，大，臣，是，真，承，允，旨，于，

派送，故，至，聲，明，該，事，大，大，大，

布，支，延，第，光，武，三，年，勅，令，第，三，三，號，

勅，令，服，登，去，二，十，日，勅，令，第，三，一，號，

各，開，港，市，場，裁，判，所，設，置，件，中，改，正，件，

布，支，延，第，光，武，五，年，勅，令，第，六，六，號，漢，城，府，裁，判，所，

制，中，改，正，件，予，頒，布，支，延，第，光，武，五，年，勅，令，第，六，六，號，漢，城，府，裁，判，所，

設，行，開，會，式，再，昨，二，十二，日，農，商，工，部，內，新，設，立，博，物，會，事，務，所，委，員，長，以，

主，事，六，人，予，改，正，事，拉，支，延，第，二，四，號，漢，城，府，裁，判，所，

設，行，開，會，式，再，昨，二，十二，日，農，商，工，部，內，新，設，立，博，物，會，事，務，所，委，員，長，以，

派，送，故，至，聲，明，該，事，大，大，大，

布，支，延，第，光，武，三，年，勅，令，第，三，三，號，

勅，令，服，登，去，二，十，日，勅，令，第，三，一，號，

各，開，港，市，場，裁，判，所，設，置，件，中，改，正，件，

布，支，延，第，光，武，五，年，勅，令，第，六，六，號，漢，城，府，裁，判，所，

制，中，改，正，件，予，頒，布，支，延，第，光，武，五，年，勅，令，第，六，六，號，漢，城，府，裁，判，所，

設，行，開，會，式，再，昨，二，十二，日，農，商，工，部，內，新，設，立，博，物，會，事，務，所，委，員，長，以，

主，事，六，人，予，改，正，事，拉，支，延，第，二，四，號，漢，城，府，裁，判，所，

設，行，開，會，式，再，昨，二，十二，日，農，商，工，部，內，新，設，立，博，物，會，事，務，所，委，員，長，以，

廣告

大阪商會株式會社

木浦群山馬山釜山馬關神戶大阪行

白川丸八月廿日午後四時出帆

信濃丸八月三十日正午出帆

木浦釜山廣原長崎馬關神戶大阪行

臺東丸八月廿四日正午出帆

木浦釜山馬關神戶大阪行

隅田川丸八月三十一日正午出帆

鎮南浦行九月廿六日正午出港

信濃丸丸八月廿五日正午出港

大曾根丸九月廿六日正午出港

陽田川丸八月三十一日正午出帆

信濃丸丸九月廿六日正午出港

芝罘太沽牛車行九月廿六日正午出帆

大阪商船株式會社

釜山長崎馬關神戶大阪行

濟寧牛車行九月廿六日正午出帆

芝罘太沽牛車行九月廿六日正午出帆

立海丸九月廿六日正午出帆

芝罘旅順太沽行九月廿六日正午出帆

釜山長崎馬關神戶大阪行九月廿六日正午出帆

立海丸九月廿六日正午出帆

芝罘旅順太沽行九月廿六日正午出帆

大連丸九月廿六日正午出帆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大連丸九月廿六日正午出帆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圖書見失支特此佈

行支名

李圭遠告白

漢城美洞

德興號

大安門前安昌號自告

良藥告白

胃弱特効藥

二日分 日貨五錢

列支立調腸支正身體

本藥是瘧毒(梅毒)派遣毒에나강有力有特効藥이라

本藥은從來로菊影堂藥局에서發售支는有名한良藥이라

本藥是如何支川重難立宿病이라도服藥

을不息支면無不治之良藥이라

本藥은如何支川重難立宿病이라도服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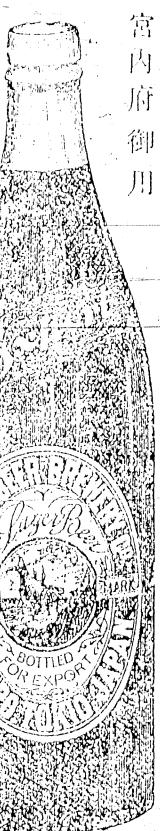
神功之良藥消毒丸

元五錢

此胃散은胃腑를強健

列支立調腸支正身體

胃散은如何支川重難立宿病이라도服藥



鍾路菊影堂廣告

元五錢

此胃散은胃腑를強健

列支立調腸支正身體

胃散은如何支川重難立宿病이라도服藥

新嘉樂

明治八年五月三十日同李承鎬、同尹寅求、同李相慶、朴泰鉉、任軍部主事敍判任官六等。申龍秀、任軍部主事敍判任官六等。任惠民院主事敍判任官六等。李冕夏、金錫昌、李根泰、趙誠德、李倍玄、朱炳訥、洪宅榮、依賴免奉官。事中龍秀、任軍部主事敍判任官六等。軍部主事金鎮彥(以上八月十二日)

黃台性任鐵原郡公立小學校教員敘判
任官四等 金浦郡公立小學校教員升貞
圭任金浦郡公立小學校教員敘判任官
六等 京畿觀察府公立小學校教員嚴親
樊任京畿觀察府公立小學校教員敘判
任官五等 九品李東鉉免本官 穆安
港公立小學校教員李喜年石亡該員引

臧列任官六等。趙慎善任內部主事敘列正官六等。安欽請任只請有道觀察

◎叙任及辭令 ◎任度支部財務官叙奏

校務會不勤引是學員之舉特選業亥咗用
終叫夏期叫試驗報告呈覆閱核是以免

官都司銅錢

平吳武兆

廿二年六月癸巳朔

隔日發行

日三月一
年元陽縣
可認部工
清農明

同李世鉉、軍部主事李務鉉、內部主事李鎮河、僉尚書學校敎官敘判任官六等、金永慶、金性漢、李啓龍、高濟益、李士衡、李昌熙、金斗洙、任內部主事敎官判任官六等、柳東效、倣鎮昌、任軍部主事敎官判任官六等、池鍾浩（以上八月十一日）
依願免本官、軍部主事金斗洙、內部主事池鍾浩、忠淸南道觀察府主事沈鳳澤、忠淸北道觀察府主事金鳳皋、僉軍部主事

主事柳東教、同僉鎮昌△任秘書院參敘
奏任官六等、正三品鄭承鉉、同李範八
益任軍部主事敘判任官六等、權鍾寔△
王泰和去完豫事敘判任官一等、軍部主
事金益聞△任吉州監理署主事敘判任官
六等、金正玉、蔡奎邦△依願免本官
軍部主事權鍾寬△任軍部主事敘判任官
六等、慶駿浩(以上八月二十一日)△依願
免本官、軍部主事慶駿浩、惠民院主郭
興漢植、同南廷學、同李炳宇△同柳慤永
敘判任官五等、鐵原郡公立小學校教員
部主事敘判任官參事吳昌善△任忠清北
道觀榮府主事敘判任官六等、張七歲△
任軍部主事敘判任官六等、權鍾寔△
任商工學校敘官敘判任官六等、李
道熙、柳鍾杓、趙重厚、鄭時亨、李道熙、柳鍾杓、
李範洙△任官立小學校教員敘判任官六
等、六品崔秉齊△任陽川郡公立小學校
敘員朴齊賢△任三和港公立小學校教員

劄委官在蘇省會同布政使司提調功一月二十日詔曰軍隊之編制已就部伍既整各其聯隊常頒給軍旗安八月九日又詔曰曩年所頒勳等未始不鑑而其在因時制宜之方不可無從道變易之美茲加允璽特大勳一章蓋亦取義於國初故實也其位次則列於金尺李化之間務令循序漸進凡我臣工其各例悉入冊目立卷以資中樞院議官吳相奎辭職疏一批旨皆疏俱悉所請依施十八月廿三日又詔有蘇寧常熟等四府

迫卓爾大臣

嗚呼！外半大臣金箕煥氏亡清族寒士の出身으로時務에留神하고國家에有意。不恤身命하고不避艱險故로受

皇上之知遇하니職任於多事之際毫不位至大臣而從外事者！非止一再라與外國交際也！種種有難便之處하니自經困窘이亦非一再也。然而不敢辭避하니未

曾讓其苦於他人하니此亦非處嫌而不苟免者歟？見今韓廷에少人하니職務務察時機者上極鮮이어。扈氏亡念茲在茲하니

克勤服役하니至於外人하니知其名者上多而知其面者上亦不少하니與其未經事生手之人上是未可同日而論也！라不

幸於去二十六日에身故謝世事하니倘非厭苦況而欲養閒於冥府哉？未知後其任者上能察其心하니以伸其志乎？哀哉！

▲各校學徒外祖貧商徒上輜湊于宮前하니敬皇歡喜立口呼萬歲하니以若蒙昧로도亦陳誠忠之氣像也！라

▲大小官人是各設盛宴하니招延妓樂하니滿心欣忭하니上承天恩하니下示宣布

▲閭巷士庶在家家益酌이오人人盡醉하니此象也！라

▲執謂韓民이不知愛國心이村疎於愛君誠正不知愛國이면焉知君이며疎於愛君

君이면豈有歡樂之心이리요今不免貧弱

支法部에서該唱大五名을巡檢으로捕

土地廳開員後官地契을頒給호너이라

之苦而猶然生는若至富強之境則當何如意。不恤身命하고不避艱險故로受

提호의監獄署로押送하니度支部에

서로派守兵丁을送하니該唱大暑奪去호

意。不恤身命하고不避艱險故로受

德으로其蹈舜朴喜之氣像은不見可觀也

地에田畠或家屋이有호人民은陰曆八月

上니九重瑞色이自然溢洋于外하라로다

上故로巡檢과兵丁이一场紛詰하니風波

▲宮內慶宴은吾人의所未得觀이여니와

想億東宮及英王之容孝와淳妃之淑

▲旅團編制完成稱慶禮式日에訓鍊院에

서관兵式을執行하니次로一師團을臨時編

成하니라는說이有호더니昨日판報로發

布호를據호期混成旅團만編制하니야

第一條 混成旅團은步兵二個聯隊과騎兵一個中隊와砲兵一中隊로編制하니

▲旅團長 奉將一人副官正副一人副官人

第二條 混成旅團에左職員을置하니事管李根澤氏가任命하니라

▲書記正校一人副校一人恭校二人計六人

右와如支那司令部의職員을規定하니領官人을招待하니舉行落大閱遊會場을景

上自東宮으로下至黎庶上不無未治之誠

이로되當日之氣像이足爲觀監하리라

▲谷府部上休暇하니諸王役아停務하니

剩得一日之間하나是已樂太平之氣像아

로다

▲各校學徒外祖貧商徒上輜湊于宮前하니

上代表호는機關이無호故로漢城紳商慶

祝會를設하니事務委員長은閔內夷

氏오副會長은李昌九氏이決定하니

任特進官。再昨二十八日에正二品徐

相雨正二品韓圭愬從一品李正魯從一品

鄭海靄正二品趙鍾弼正三品李鳳儀從二

品閔景植從二品黃耆淵從二品尹德榮從

二品鄭世源從二品尹憲求從二品尹秉綬

所辭中華禮卿之任을依施하니오復하니

任特進官。再昨二十八日에正二品徐

相雨正二品韓圭愬從一品李正魯從一品

李根澤正二品李根澤正二品李根澤正二品

高城李明來橫城李鍾龍。尹鍾龍。尹鍾龍。

高麗李金鉉。成從安邱洪基周臨坡白甫圭

列傳卷之二

吾上曾有待斷髮辨論之人。리나 千二百
十七號中에 無名氏가 對斷髮論說明이 있다.
名氏는 乙酉書을 命하여 言하고, 此所

爲名章而開化者舊有諸子之傳而其人則
東問西答以假令孔子非聖人乎否平
야問支而孔子與否忘不論支고其母
孔子를 生平 암송하면서 그의 母母人이라 하
파如 흔지 然이나 徒亦好篇이라於 此에
始可見實地開化人마로다 服裝之服支可
誦樂之言이면 即樂이라 놓 암송스니 必無成
魏之理오 애모거시는지 實地의 개설호리

古昔舜臣四君上을 舊號又名玄仁。至
聖意是背玄正民營毫凌玄。蠶國害民玄
而引玄實地以圖玄。其君上이 執舜
又為玄立謚號不成。以是反爲狗子之文
句。而開化의 虛實。各論玄。然則我
所謂貴紳之風俗。引其出他所也。非驕
則馬。非馬則驕。一。若有所至於不得已。
從步之際。或其從者。左有擁護之扶掖之
而行。玄。一。此修飾儀容。盛裝嚴嚴之極
矣。外國人。而觀其盛裝嚴容之態。立惶
惶然。而相告曰。懼矣。大韓國紳士。而威
風。如彼。玄豈不。等國大人乎。又。玄
。不敢行。恃。玄。此乃所以爲心智。立實
地之法。行者乎。如此。則開化。玄。吾是。玄
者。玄始。可見。玄。亦可謂以無名氏爲名。而
玄。然。又。是無名之氏。非愚似似愚。非
痴。不必正鵠而知之。玄。亦其所論。而不可
謂。亦非高論。而不可。辨論。之。價。僅。是
也。

本公司辦有老實、誠信、穩健之事業，

江北通信

北
夏
生

三

卷之三

卷之三

皮
0

卷之三

卷之三

卷之三

20

印도艦長(二)大副(船客官)가
제港으로進航해야 합衆國公使의 命을 律
흘러인디 該公使는 구아데마라國이 파라
지아를 遣捕하는 權利가 있다는 意見을 艦
長에게 告호자마구 아데마라國官吏는 파

淸人九名叫韓人十五名合計二十四名의
筏手가 乘玄立順流玄 由七月一日에 懷仁
縣將軍石의對岸되니 韓國地方에 至玄야
繫留玄 由此間에서 日暮玄니 韓人筏手

▲各國大使上或有來臨之說々或有不經費卜有算乎？其居處卜有所乎？其教練卜有術乎？其可合用於觀兵式平哉？

란지아를逮捕하려는과 란지아가官吏
를向호족마주沓호미쓰호다가드되여
죽이니라當時산자요鋪地에美國軍艦이
在泊한양도되其將校는파람지아가來호
登豫知호요公使에게電報한야目下에이
의平和에復호後인즉該艦船에구아데마
라國地方自治權을承認하고自己의指揮
全權을나타내며자본지사를마카루로

名은此近傍에自家사잇대로下陸하야時
를經하야도歸來커아니호기로그냥이
려두었더니夜深호以後에鐵砲外棍棒을
가진十餘名의韓人이突然이來到호야筏
에追突미清人等은逃陞호야其後호下流
에在호清人商船에至호한국泊宿하고翌
二日에派送호았는清人一名이陸路로通
溝에至호야

本來之說호니若來臨時에果知接待之禮頤
야
本人의 四寸 鎏斗卒 呂敬壽 온티性本浮浪
호니 蕩敗家產호니出沒京鄉符同雜類호니
야 本人의 田土을 僞造成賣호니여호니
產을 欲奪호니内外國人은 切勿冒
欺호니지음
楊根居 許銚 告白

道軍艦을 사기로 한 바에
에還送호라호남을 고려政府에勸告호리
로提議호았더니여기對호야公使의 言甚
에曰政府는 軍艦이 파란지아를 還送호는
問題을 拒絕호였스며

◎既典且賣 龍山居全州郡守申永休氏
外砥平郡에 在高里自己省五石六斗落叫
田八日耕文券壹錢二万四千兩의 李鍾聞
예刊典當玄正伍文券壹錢造玄正朴挺煥
氏에川斥賣玄正故至互相爭訟玄正官庭이
紛擾玄正호다리라

◎意艦出自 互文島에서仁川에入港호
야 碇泊호意國東洋艦隊발고부로號호三
昨日午後三時에 艺榮로向高嶺 담화다리라

時事摘要

▲近來遊宴之風이 大熾玄正各亭子에
寺刹에 驚游客이 相繼不絕玄正亦是閒山
事니라太平氣像이라호다리라

▲才子佳人斗皆以爲時哉料不可失이 라
今我不樂이면日月其逝니라호다리나非爲
開也上라伊爲忙也上로다

▲子集多是其假布達城니로因此亦可參
여니와無養無暇而遊哉니로遊亦不可
也上로다

本年正月南面矣名不知李氏斗尹今石兩人引在漢府
斗庶第士六歲兒童誘引奸爲僞造新文書
欲爲僞賣乞於內外國人乞勿爲見欺
典買物切望嘉

